

第1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 '93. 1. 19.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1. 제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	3
2. 제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

## ※ 부 록

가) 의사일정안.....	69
나) '93년도 주요업무계획.....	71
다) 청주시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선발방법 개선추진(안).....	91
라)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중점사업계획.....	93
마)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요약).....	95
바)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내용 처리현황.....	103
사) 우암상가사고관련 학생인명피해상황.....	119





# 제 19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 본 회의 회의록(개회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1월 19일 (화요일) 11시 00분

### 제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회사(의장 김영세)
6. 폐 식

(11시 00분 개식)

#### ● 의사과장 이영규

지금부터 제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목 념

(녹음 주악)

·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관 여러분!

새 정부의 탄생을 위한 격동과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계유년 새 아침을 맞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며 큰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1993년 첫 교육위원회를 열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한 일련의 보고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개선안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계획 등은 본도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주요 현안으로써 금년 한해가 우리 모두의 정성과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 볼때 우리는 교육자치법의 한계 등 어려움속에서도 150만 도민의 교육열망과 기대를 모

아 교육자치의 정착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색을 신장시키기에 힘써왔고 교육자치를 통한 본도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조례, 규칙, 예결산 등 30여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집행청에 대한 감사와 정책질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풍토의 쇄신과 교직원의 사기진작에도 성의를 모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대망의 21세기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새 정부의 신 한국창조라는 역사적 소명과 민주교육을 통한 교육입국 그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창조적인 노력을 위하여 한껏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본도 교육의 큰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유기적 협동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며, 이미 시작된 21세기의 교육을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일선의 교육현장에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본도 교육의 새 장전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민주교육의 실천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추진중인 교육자치법의 개정작업이 하루속히 매듭지어져 그 제도적 모순이 바로 잡히고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가 과감하게 실시되어 교육의 자율성이 크게 확립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을 비롯한 행정, 인사, 재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방교육의 실제적인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중앙의 관료적 타성과 획일적 예속 행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교육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기반을 기필코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본도 교육의 주요 목표인 교육의 본질 추구 문제도 오늘의 입시위주의 교육 병폐에서 과감히 벗어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전인교육과 학

생들의 자유 분방한 성장과 발달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 일동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의 세세한 교육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는 한편,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하여 위원으로서의 참모습을 갖추고 외국의 교육제도에도 눈을 돌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교육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관계관 여러분!

밝아온 1993년도에도 세계질서의 격변, 새 정부의 탄생, 심각한 경제문제, 남북대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교육자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명실상부한 교육입국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150만 도민 모두가 본도 교육의 선도적 위치에 서고 미래사회를 착실하게 준비하며,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과 신

한국의 창조에 다같이 참여하는 수법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큰 행운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월 19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김영세

● 의사과장 이영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13분 폐식)

#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1월 19일 (화요일) 11시 13분

## 의 사 일 정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청주시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선발방법 개선안 보고의 건
4.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중점사업계획 보고의 건
5.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의 건

##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영규)
2. 제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청주시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선발방법 개선안 보고의 건
5.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중점사업계획 보고의 건
6.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13분 개의)

1. 경과보고

● 의장 김영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3년 1월 7일 집행청으로부터 보  
고사항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1  
월 7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93-1호로 공고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지난 18회 의결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  
경안,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92년 12월 16일 집행청에  
이송하였고,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12월 8일  
이송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금 회기의 처리안건입  
니다.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주시 일  
반계고등학교 신입생선발방법 개선안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중점사업계획,  
인력진단 실시결과 등 내건에 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92년 정기회때 실  
시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처  
리 보고가 '92년 12월 24일 집행청으  
로부터 접수되었기에 '93년 1월 6일  
자로 각 교육위원님께 우송해 올린  
바 있습니다.

(별첨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내용 처리현황"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5분)

2. 제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의사일정안에 의하여 알려드  
린 바와 같이 제19회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임시회는 1월 19일 1일간으로

하여, 집행청으로부터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 4건의 보고를 듣고자 하  
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회 청  
정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3  
년 1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3.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청주시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개선안 보고의 건
5.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중점사  
업계획 보고의 건
6.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의 건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주  
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  
항 청주시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선발

방법 개선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  
항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중점사업계  
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인력  
진단 실시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계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박동기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영세 의장님을 비  
롯한 여러위원님들에게 새해 인사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유년에도  
더욱 건안하시고 맥내에 행운과 만복  
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  
다.

지난 1년동안에는 여러위원님들께  
서 집행기관인 저희들에게 직접·간  
접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는 일깨  
워 주신 교육내용 전반에 관해서 저  
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



다만서도 여러위원님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았나, 이렇게 자성도 해 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문성과 자주성을 더욱 더 제고하고 또 교육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릴 빌어서 여러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유년인 '93년도에도 더 더욱 저희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금 지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199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박동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보고하십시오

(11시 41분)

《청주시 인문계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개선안 보고》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청주시내의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개선추진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라면서 현행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여섯개 항목으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별첨 "청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선발방법 개선(안)" 참조)

첫째가 지방화시대에 따르는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고,

두번째는 학생의 학교 선택기회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택과목이나, 통학거리, 종교 등이 해당이 되겠지요.

세번째는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상실되어 있다.

네번째는 학습 집단의 이질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수업운영 및 생활지도의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



다섯번째가 사학의 자율, 독자성 추구의 곤란성입니다.

여섯번째가 하향 평준화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보완 개선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겠다.

그래서 개선의 긍정적인 측면이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의 특색있는 발전 의지를 도모해 나가겠다.

두번째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겠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학생 신앙에 부합하는 학교 선택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종교로 인한 갈등을 해소시켜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네번째는 학습 집단의 동질화에 의한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하도록 해나가야 하겠다.

다섯번째는 교통난 완화입니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의 고등학교를 지원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가 사학의 자율, 독자성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 유인물에는 빠졌습시다라는 일곱번째가 '96년 3월서부터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그 개편에 따르는 대비를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안하고 2안, 두가지를 내놓았습니다.

1안은 기본방향으로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총 모집정원을 선발을 하고 지원교에 성적순으로 선배정 하는데, 2지망까지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의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미달교에 추첨 배정한다고 하는 방법이 제1안이 되겠습니다.

2안은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이 제2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도에서는 제1안을 추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93년은 홍보의 해로 정해서 1월달서부터 금년 12월까지의 구

준하게 조용한 가운데 홍보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개선점에 대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사회각계 각층의 인사님들에게 홍보 보도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2월달에 개학이 되면 2월 8일에 중·고등학교가 개학이 되기 때문에 개학과 동시에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 대한 양케이트를 작성해서 여론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3월달에 가서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회를 갖는데 그 설명회는 지위·계급을 막론하고 청주시내 각 분야에 속해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거기에 따르는 교원의 인사제도도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다섯번째는 교육환경을 좀 개선해서 특색있고 다양한 실험실을 건축하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여섯번째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교원의 자질향상에 적극적으로 연수회를 확산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더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선 청주시내 중학생들의 진학할 고등학교의 선택성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알아 보았습니다.

첫번째가 아침 등교시의 교통지옥과 밤늦게 하교시의 안전 귀가 등을 고려해서 거주지의 인근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고,

두번째는 '9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학입시에서의 고교 내신성적 40% 반영과 관련하여 자기 능력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신등급 관계로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청주시내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국어 교육, 수월성 차원의 특수교육 등의 영향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선택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경향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96년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입각한 선택과목의 선정은 학교장 재량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의 선택과목이 구구할겁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선택과목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로다가 지원을 하도록,

그 다음에는 네번째가 자신이나 가정의 종교와 관계된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가지로 중학교 학생들의 경향,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이 해제가 되어 있는 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군산, 목포, 안동이 해제가 되었고 '92년도에는 춘천, 원주, 이리, 이렇게 6개 시가 이미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도에서 '94학년도부터 제1안에 입각한 입시제도의 개선이 홍보됨에 따라서 서울, 부산, 천안 등 각개 지역이 그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추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본도의

고교입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해서, 조용한 가운데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육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중점사업계획 보고》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계획" 참조)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계획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기본방향입니다.

교육자치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과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자치의 바

탐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학교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으로 교육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큰 두번째, 사업내용입니다.

첫번째로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의 실현입니다.

첫째, 학교장의 지도성을 발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장 세미나를 금년 4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의 사명감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학교장의 근무지 상주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사와 주민과의 대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시행 대비를 위한 지역 학교단위 교육과정 구성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학교 재량시간 운영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교재가 영어, 한자, 컴퓨터에 대한 자료를

개발, 일선에 보급을 해야됩니다.

현재, 영어는 '92년도 충주 남한강 국민학교에서 연구·개발된 내용이 이미 보급,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교직원 회의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 교육개혁을 수립한다든가, 행사계획을 한다든가, 또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 평가 등등을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교내 인사가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공개를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내용은 예산편성시 관련 교사를 참여시키고, 또 집행 우선 순위를 결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매주 시행되는 주생활 목표를 선정  
을 하고, 실천하는 문제를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는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  
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가 학부모 교실운영을 활  
성화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학교신문, 가정통신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활동을 안내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 교육활동에 반영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동회, 학습발표회, 소  
풍 등 학교 행사에 주민이 동참하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는 "교육자치의 오늘과 내일"  
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교육자치의 이론적 연구  
및 현장체험 사례 등과 관련한 논문,  
논단, 수상 등을 수록하겠습니다.

영역은 교육자치제도, 주민참여 현  
황, 학교단위 자치활동 등으로 하겠  
습니다.

원고수집은 교육위원 및 도의원과  
교육전문직, 각급학교 교원, 일반적

등 광범위하게 원고를 수집하고자 합  
니다.

발간시기는 금년 4월중으로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별도  
유인물로 우암상가 사고관련 학생 인  
명피해 상황을 참고로 유인물로 드렸  
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우암상가사고관련 학생인명  
피해상황" 참조)

이상 보고말씀 올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님, 지난 제18회 교육위원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력진단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지역교육청 교원인사 사무  
분장 조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제18회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인력진단 실시결과와 구체적 내용과 '93년도 정원조정 작업시 변동된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의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요약)" 참조)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단의 목적과 기본방향, 진단대상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인력진단을 위해서 추진해 온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인력진단 실시결과와 분석으로써 첫째,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고 둘째, 각 기관단위로 자체 실시한 1차 진단결과를 세째, 직급별·기관별로 현장조사에 의해 실시한 2차 진단결과를 그리고 진단결과와 사후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진단의 목적은 '91년도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제정후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력을 종합적으로 진

단함으로써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력을 제고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단의 기본방향은 첫째, 부서별·담당자별 연간 업무량을 조사하여 진단하되 현장 실사를 병행하고 둘째, 소요정원 산정시 그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판단하여 현 정원의 적정여부를 진단하며 셋째, 신규 수요분야는 조직내에서 기능의 중요성이 감퇴하거나 행정수요가 감소한 부서의 인력을 상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두었습니다.

진단대상 기관과 분야로는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직렬별로 진단하였고, 조직 및 사무분야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개편이 예견되므로 진단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진단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6월 18일 인력진단 실시계획을 수립, 실무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1차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 기관별·부서별로 개인별 업무추진 실적 및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2차 진단은 '92년 9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현장조사에 의한 사실확인,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편, 지역교육청의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11월 중순부터 1개월여에 걸쳐 1·2차 진단결과 및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2차에 걸친 인력진단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진단의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정원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행정기관에는 현재 교육전문직 209명, 일반직 441명, 기능직 330명, 별정직 14명 등 모두 994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정원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충북과 도세가 비슷한 시·도가 없어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없으나, 학교수·학생수·교원수 등이 우리 도보다 다소 많은 강원, 충남, 전북교육청과 비교할 경우 교육전문직은 4-11명, 일반직의 경우 7-15명, 기능직은 8-33명이 각각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다음은 기관별로 자체진단한 1차 진단결과입니다.

연간 업무처리 소요일수를 살펴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계장 이상을 제외한 직원들의 연간 업무처리 소요일수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위원회의 경우 388일, 도교육청은 290일, 직속기관은 305일, 11개 지역교육청의 경우 332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연간 근무일수를 280일로 추정할 때 모든 기관들이 정상 근무일수를 초과하고 있어, 직원들은 야근 또는 특근을 통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자료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자체 분석자료이며, 같은 단위업무라도 처리 소요시간을 각각 다르게 산정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계 단위로 분석하였으므로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별 분석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약서 4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직, 별정직,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순으로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진단결과에 대한 대강만을 말씀드리고 단위 기관별·부서별 진단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전문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제개편 이후 증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되어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결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특수학교 7개교에 135개의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전문인력은 3명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2명 정도의 전문직을 증원하여 특수교육의 내실화와 진흥을 도모하고, 심신장애자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청됩니다.

또한, 도교육청 관내에 공립유치원 365학급, 사립유치원 242학급, 새마을유아원 104학급 등 711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도 및 지역교육청에 4명의 전문직 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학교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도교육청에 2명, 과학교육원에 1명뿐이므로, 도교육청과 과학교육원에 컴퓨터 교



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이를 전담할 교육전문직 1명씩의 보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방송 활용의 일반화를 도모하고 교육방송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교육방송 담당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단 1명의 전문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전담 인력의 배치가 요청됩니다.

특히 제천, 영동, 음성야영장의 장장인 교육연구사와 종합야영장의 연수부장 및 학생회관의 운영부장인 교육연구관은 조례상 보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해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 장학사 1명, 중등장학과에 장학담당,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각 1명, 초등·중등교직과에 인사담당 장학사 각 1명, 과학기술과에 과학담당 장학사 1명, 그리고 과학교육원에 이동과학차 증설에 따른 연구사 1명 등의

추가 정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총괄하여 보면 장학관 2명, 교육연구관 3명, 장학사 37명, 연구사 10명 등 모두 52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인력 부족 현상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단지원 행정의 저해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92년 4월 4일 교육전문직 51명의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정원을 '93년 1월 14일자로 도교육청의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및 교육방송 업무인력 1명, '91년도에 직제개편시 신설된 부서의 실무인력 1명, 유아교육전담요원이 미배치된 지역교육청의 실무인력 1명, 행정수요 급증등으로 인력 보강이 절실한 지역교육청의 실무인력 1명등 총 4명을 가배정 받았습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다음은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의 비상계획담당관과 단재교육원, 종합야영장, 그리고 7개의 간이 학생야영장에 학생수련요원

12명등 총 14명의 별정직공무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경우, '92년 7월 28일 관련 조례의 개정 에 따라 의안연구관인 별정직 5급상당 1명의 증원이 요청되어 이를 '92년 8월 18일 교육부에 요구한 결과 '92년 12월 14일 교육부로부터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이 학생야영장 수련요원의 직급 상향조정 문제입니다.

야영장의 별정직공무원은 학생수련이라는 교육기능을 담당하므로 이들의 직급을 현행 8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물론 수련활동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금번 직급 상향조정 대상은 야영장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연간 수련인원이 가장 많은 중원학생야영장입니다.

참고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6급상당의 경우는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지자로서 전역 대위 또는 중위인 자와 학사학

위 소지자입니다.

8급상당의 경우는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지자로서 전역 하사관 또는 병인자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인사담당자의 직급 하향조정입니다.

이는 지난 제18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행정 6급이 담당하고 있는 교원 인사업무를 교육전문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동 업무를 교육전문직이 전담하고 행정 6급을 7급으로 하향조정하여 학무과에 배치함으로써 인사 및 일반사무를 보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청주교육청은 폭주하는 교원 인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6급 이외의 7급 1명을 추가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학급이하 소규모 국민학교의 사무직원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제기된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에 비추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12개의 국민학교중 7학급 이상 141개교에는 모두 배치 완료하였고 6학급이하 171개교중 168개교에는 배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중 향후 4년간 분교장 격하대상교 56개교를 제외하면 모두 112개교에 사무직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7학급 이상의 학교와 업무량이 대동소이하며 또한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배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대상학교에 모두 배치할 경우 연 13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며, 타시·도의 경우도 6학급이하의 국민학교에는 현재까지 사무직원이 배치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전면 배치는 고려하기 어렵지만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배치계획 수립이 조속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93학년도에 7학급에서 6학

급으로 감축된 5개 국민학교에 배치하였던 정원은 이를 감축하지 않고 계속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과 과학고등학교 사무과의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과학교육원장이 과학고등학교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또한 양 기관이 동일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과학교육원의 이전계획안이 확정되면 현행대로 분리운영이 불가피하므로 통합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산직의 경우입니다.

도교육청에 3명, 직속기관 및 과학고등학교에 4명이 있으나 전산업무와 관련이 적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정원을 도교육청에 통합운영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폭증하는 전산업무 처리량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요증대에 대응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업계고등학교 전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고에 7명의 전기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바 그들 대부분은 급여업무와 재산, 물품, 문서, 보안업무 등 행정분야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중 일부를 지역교육청으로 전환 배치하여 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독과 관내 학교의 전기시설을 관리케 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됩니다.

한편, 도서관 사용료 징수가 폐지된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1일 평균 이용자가 250-400명에 이르는 일부 지역도서관에 사서직원의 증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93학년도 급식학교 추가 지정에 따른 영양사 확보를 위하여 보건직 14명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수영장의 경우 청주교육장에게 관리·운영에 관한 감독권은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충북체육고등학교가 동일 구역내에 건립되어 이전하는 관계로 체육고등학교장에게 수영장장을 겸임토록 하여 동 수영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회관의 경우 총무과에 서무계, 관리계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과업무의 성격내지 업무량에 비추어 제조직의 필요성이 적다고 진단되며 또한, 다른 직속기관 조직과의 불균형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요약서 7쪽 입니다.

끝으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숙직근무에 따른 기능직 증원문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10월 5일 제정·공포된 초·중등학교당직근무규칙에 의거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당직전담 기능직이 배치된 국민학교와 같이 기능직공무원이 숙직을 전담함에 따라 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원 숙직근무 면제의 근본 취지에는 물론 찬동하지만 대안의 마련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하여 수차례 보도되고 단체행동의 우려도 예상됩니다.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76개 학교에 기능직 추가배정이 요청되고 있으나 이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정원과의 불균형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증원시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되므로 금년에는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12개교, 총 39개교에 기능직 1명씩을 증원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학생야영장의 기능직 증원 문제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우리와 같은 규모에 5-8명의 직원이 배치된데 반하여, 우리 도의 경우 연구사, 별정직, 기능직 각 1명씩 3명밖에 없어 학생들의 야영과 수련활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이 부족하므로 7개 간이 야영장중 수련실적이 가장 많은 증원야영장에 기능직 1명의 증원이 요청됩니다.

또한 직명과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직렬을 변경하여 정원관리상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경우 조례상의 정원인 사무보조 및 운전원의 증원이 불가피하고, 충북수영장의 수영지도요원 확보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고등학교의 전기직 일부를 지역교육청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학교의 전기시설 관리를 위하여 기능직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도교육청과 일부 직속기관의 기능직 정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재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경우 인력을 감축 운영할 수 있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진단결과에의 사후 조치로써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부에 정원요구 및 정원의 자체 책정과 조정이 뒤따라야 하고,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규칙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력진단 실시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였습시다마는, 실시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첫째는, 행정 업무의 특성상 이를 표준화, 계량화, 객관화 하기 곤란하

다는 점이며, 단위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가 적정하고 현재 배치된 인력이 주어진 업무처리에 적정한 인원인가 등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위기관별, 부서별 적정인원 산정이 참으로 곤란하며, 따라서 진단결과의 신뢰성,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유는, 인력진단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며, 진단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력의 부족,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셋째로, 공무원의 수는 날로 증가한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증원 요구한 인원이 교육전문직 58명, 일반직·기능직 및 별정직 76명 등 모두 134명에 달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을 감축하여 달라는 요구는 없는 반면, 인력이 부족하므로 더 배정하여 달라는 요청 뿐이므로

기존의 정원을 감축 운영함에는 많은 저항과 갈등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후 조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신규 수요분야는 조직내에서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부서의 인력을 상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자구적 노력을 계속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교단지원을 위한 인력배치는 신속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그동안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행정력 제고의 측면에서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였다고는 생각하나, 그 결과가 여러 위원님들의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휴식시간을 좀 줄까요, 그  
냥 강행을 할까요 ?

어떻하시겠습니까 ?

강행하셔도 되겠습니까 ?

(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2시 19분 )

( 12시 28분 )

《 질의 · 답변 》

● 의장 김영세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 보고한 안전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적으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예, 이상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위원입니다.

아까 중등국장님께서 청주시 일반  
계고등학교 신입생선발방법 개선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실때 그 기본방  
향을 1안으로 하시는 걸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비평준화 지  
역입니다, 충주 중원에.

지난번에 고등학교 선발 시험을 봤  
는데 충주고등학교에서 107명, 예성  
여고에서 43명, 충주상고 23명, 대원  
에서 14명, 충주여고 10명, 그래서  
197명 정도가 전기고등학교에서 불합  
격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격한 학생들이 후  
기에 시험을 봐야 하는데 후기에 모  
집을 하는 학교는 중원군 엄정면에  
있는 충원고등학교 1개 고등학교 뿐  
입니다.

그런데 전기에 학생을 모집한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주덕면에 있는 주덕  
고등학교가 두 학급을 모집했는데 한

100명 정원에 18명정도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덕면을 중심으로 해서 신니면, 이류면, 노은면, 주덕면, 그 4개면의 학부모들이 엄정면에 있는 충원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충주시를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약 30km, 시간으로는 한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주덕고등학교의 미달인원 18명도 후기에 모집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허락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학생 선발 관계를 점검하실 때 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후기에 뽑고도 갈 데가 없어서 정말 대학 떨어진 애들 재수만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에 불합격한 애들 재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충주는 비평준화지역이라 충고·여고에 갈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현상도 생기지만 전체적인 인원으로 봐서 학생수가 지금 후기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학급을 더 증설을 해서 뽑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기존의 학급중에서, 기존의 모집인원중에서 모자라는 애들은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

(이재희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이재희 위원 질의하시죠.

● 이재희 위원

저도 청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선발 방법 개선에 대한 것 한마디만 여쭙보겠습니다.

저도 선발 방법을 개선하는 안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평준화를 만들 때는 과외 열풍을 막기 위하여 그 방안으로 평준화 지역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자녀수가 적으면서 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고, 또 이번에 300점 넘은 고득점자 낙방수가 많으면서 어떤 문제가 보도되었느냐 하면 300점 넘은 사람 후기대학 집어 넣는데 쪽집게



과외비가 1억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선발 방법을 바꿨을 때 음성 과외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방법같은 것도 마련하고 계신지, 혹은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에서 이런 질문이 또 나올텐데 이런 답변도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예, 김응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본도에 가령 이 제1안의 시험제도로 모집해서 합격된 인원하고 현재의 고등학교 시설상 수용인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혹은 과부족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원 감소로 군청 소재지 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현실정도로 봐서 보은고등학교나 보은농고나, 보은상고, 여기에 모집인원의 상당수

가 많은 인원의 부족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청 소재지의 앞으로의 경향은 고등학교 1개교 운영이 겨우 될까 말까한 이러한 추세라고 일전에 중등교육국장님께서 그 추세를 말씀 하셨어요.

군청 소재지가 거의 같겠지만 보은군의 경우 고등학교가 보은고등학교, 보은여고, 보은상고, 보은농고로 인문계가 둘, 실업계 고등학교가 둘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지정해서 문제시 되는 걸 공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보은에 어느 고등학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마 익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보은여고를 보은남여고등학교로 개편을 하고, 보은중학교를 보은여중하고 합쳐서 보은남여중학교로 합친다면 공립으로 승격이 되면서 모집인원, 기타 여러가지 면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지금 절대적인 지방여론입니다, 요망사항입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보은고등학교하고 보은여  
고하고 합쳐서 남·여 공학으로 인문  
계 고등학교 하나 만드는 것을 인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은중학교를  
보은여중하고 합쳐서 남여중학교를  
하나 만든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지방  
주민의 요망에도 부합되고, 제가 단  
견인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의 추세  
나 제도면에서 공립화 된다면 여러가  
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데  
도 꼭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할런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 위원 질의하시죠.

● 박병해 위원

각 직할시, 전국의 대도시에서 국  
제고등학교를 세워서 그야말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집단화 하는 학교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은 교  
원대학에서 부설고등학교를 그런 식

으로 설립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듣  
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  
이 첫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에는 여기 현행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 네번째에 "학습  
집단의 이질화" 이것이 어째서 이질  
화나, 현재 교육청에서는 "평준화로  
전부다 똑같이 배정했으니까 그대로  
가르치고 우열반을 나누지 마라" 하는  
것이 도의 지시인데, 사실상 그것이  
우열반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현행  
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여  
온 것으로 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여기 써  
있는 것이 타당한 얘기냐?

그 다음에 셋째번에는 그 마지막번  
에 보면 "하향 평준화", 그러면 이것  
이 "우리가 평준화 작업에 의해서 언  
제 시작을 했는데 그 때 접수는 몇  
점인데 현재는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몇 점이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

문에 상당히 이 문구 자체를 어떻게 해명을 하는 것이냐, 꼭 궁극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라고 하는 말이 근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선의 긍정적인 측면에 둘째번 "학생의 학교 선택권"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 봐서 대단히 바람직한 얘기이고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점수를 받아서 A라고 하는 학교에 죽 들어가고, B라고 하는 학교에 죽 들어 갔을 때, 그 아이들이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 "나는 이런 소질을 가졌으니깐 이 학교의 특성에 참 맞는다, 그러니까 이리로 가야겠다" 그해야 켜는데 현재 청주시내에 있는 인문학교는 그런 특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은 과거에 이 학교가 대학교를 많이 간 학교이니깐 이리로 지원해야 켜다고 하는 것 밖에는 담임이나 학생이나 별 구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 할 때, 그러면 가

령 A라고 하는 학교가 100명 모집인데 150명이 왔다, 그러면 100명중 끝에 아이들은 담임이나 학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선택한 학교니까 잘 선택했다" 이것으로 그치겠느냐, 고등학교의 성적 40%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며는 적어도 거기에 60번까지는 "그 학교에 잘 했다"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마는 61번서부터 100번 아이들까지는 "내 점수를 가지면 오히려 저쪽에 우리보다 점수가 못한 학교에 빨리 지원해야 내 점수가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로 또 다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담임이나 학부모들은 또 점수 눈치작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대학교 이상으로 눈치 작전을 해야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며는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그 두번째의 얘기가 이것이 타당한 얘기냐, 결과적으로 잘못 하며는 이상한 조치가 되기도 쉽지 않

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췌번에 보면 "학습집단의 동질화" 성적순으로 1번서부터 100번까지 가는 학교, 101번서부터 뭐 이렇게 따져 보며는 동질화가 되지는 마는 아까 얘기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쪽 아이들이 저쪽으로 가고 이쪽 점수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눈치 작전을 해서 학생들이 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동질화가 되겠느냐, 걱 걱정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가령 청주시내에 있는 학교, 중학교 애들뿐이 아니라 저 남부를 제외한 모든 우리 도내의 중학교 학생들은 지금 성적이 좋지 않아서, 혹은 재력이 모자라서 청주를 못 보내지, 누구나 청주에 넣으려고 하는 욕심만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령 A라고 하는 청주시내 학교가 제일 좋으니까 우린 그 곳으로 지원을 해야 겠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며는 현재 중학교 학생들의 과외수업은 문제가 아니라

고 나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과외 수업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봅니다.

과외 수업을 하지 않고는 그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청주시내에 있는 학교 어디고 그냥 아무데나 가려고 생각을 하면 모르지만 그런 집단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야간에 과외수업을 안하지만 만일 이것을 허용한다고 하며는 야간 과외수업까지도 할 수 밖에 없는 학부형들이나 담임의 심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학의 자율, 독자성 추구" 등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실시함으로써 해서 사학이 현재와 다르게, 보다 사학답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게 뭐냐, 이게 꼭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일 아까 말씀드린 국제고등학교나 교원대학의 부설고등학교,

뭐 이런것도 제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한다고 가정을 한다며는 현재보다도 더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지 않겠느냐, 청주시내의 애들도 A라는 학교에 가기보다는 서울에 그 학교로 가야겠다는 이런 폐단은 안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이 돼 있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에,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계획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계획 세우신 것을 보니까 전문가가 머리를 짜서 연구를 해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장기발전계획

획과도 관련을 짓고, '92년도 계획과도 비교를 하면서 그동안 작년도에 있었던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교육목표에 관해서 보니까 '92년도 교육목표는 "조국의 선진화에 기여할 한국인을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달라져서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한 한국인" 해서 "건강한"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화를 보여주고 계시다. 즉 10년 앞을 내다보고 뭔가 우리가 우렁차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첫 발짝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 교육의 목표는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이상 변하지 않고 갈 것 아니냐, 교육의 정책이 자주 바뀌니까 이런 기본 목표만은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변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의 방향을 봤습니다.

거기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점진적인 교육체제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종전의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교육행정에서 지방분권적이고 독자적인 우리 충청북도 나름대로의 어떤 다양한 체제로 바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이런 뜻으로 봤는데, 혹시 그런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의 신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방향"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교육행정의 신념이 교육감의 신념인지, 아니면 어디서 이것이 나온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계획을 일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시대에 맞게 지역화 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고, 21세기의 장기발전 계획과도 연관을 지어가면서 또 행정감사시 지적한 것도 곳곳에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비해서 어떤 가능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역동적인 계획이 아닌가, 그리고 융통이 자제된 치밀한 계획이었다 하는 감을 느꼈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파심입니다.

제 개인의 노파심인데 충분히 연구 검토하신 것인데 전년도의 업무종합평가 분석 과정을 충분히 거치셨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의 감사 지적사항도 거기에 어느 정도 저도 볼 때 상당히 침투가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평가분석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작용을 했는가 하는 것도 여쭙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의 교육목표를 보니까 "학생문화 형성"이라는 아주 참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학생문화 형성"이라고 할 때 이 참신한 조항이 몇 년 더 가지 않을까, 이것이 일년만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학생회관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학생문화가 적어도 몇 년은 가야 구축이 된



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학생 문화형성이라는 말이 속 빠지고, 물론 다른데 다 녹아들어 갔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했어야 될 이유가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런 것도 여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92년도 12월 달인가 10월달에 나온 구체화 방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육시책 구체화 방안"하고 지금 현재 나온 계획하고 순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1, 2, 3, 4, 5, 6, 7까지 나가는데 이게 어떤 우선 순위를 나타내시는 것인가, 제일 우선순위별보다가 1번부터 7번까지 나가신 건가, 아니면 그런 뜻이 없는 것인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도 거기에 비중을 해서 배당이 되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어떤 교육시책이라든가 국가시책도 우선순위가 엄연히 있어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것 부터 순서가 나와 있어야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별적인 개인의 생각을 가

지면서 우선순위가 과연 책정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쭙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여섯번째의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 향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그 세부실천 사항이 어떤 것인가 검토해 봤더니 교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질을 향상 시켜야지, 타율적으로 연수를 시킨다 든가, 연수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한다든가 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자율적인, 스스로 알아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인센티브(Incentive)랄까 유인책,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동기가 유발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전문직 공채 제도가 있다든가 혹은 전문직 우대책이 있다든가, 또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학생회관 같은데 아까도 인력진단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학생회관은 엄연히 조례에 있는데도 보직이 안되고 혹

은 야영장이라든가 혹은 청주교육청의 사체과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역시 전문적으로 보직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이렇게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러한 적재적소 배치, 전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다 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것을 좀더 가시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전문직 기피현상을 막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연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항목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아서 뭔가 그런 항목이 어딘가 숨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지금 교육청에서 발표하신 업무계획이 현재 제도로 봐서는 교육자치법에 따라서 우리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보고만 하시고 끝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교육행정의 방향에 보니까 "점진적인 교육체제 개선 방향"이라는 항이 있어서 현재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하지마는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좀더 점진적인 교육 체제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한다든가 할 때는 교육위원회에 통과를 봐서 교육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자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옮겨갈 뜻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다섯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 선발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라든가 몇 개 도에서는 벌써 평준화 시책이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 고교평준화 시책의 근거법규가 어디서 만들어진 법규며, 이것이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대로 자율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항상 따르는게 법규인데 그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렇게 결의하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



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를 충분히 해왔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1안에 따라서 한다며는 성적순으로 우선 선배정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적당히 배치를 한다 하는 제 1안에 대해서 과연 몇 %로까지 선배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평준화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요.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물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취지를 긍정적으로 살리는 방향은 없는가, 그래서 아까 박병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평준화 제도가 없어진다면 더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감사에 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인력감사를 실시할 때는 발표하신 담당관님께서도 미리 예견을 하셨는데 뭔가 인력이 잘못 배치가 되어서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도 모자란다 하

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견에서 인력 감사를 실시해 보자고 했던 것인데, 그 반대로 엄청난 인력이 모자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전문직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래서 52명이 현재 부족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근본 원인이 아까도 말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근본 원인이 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뭔가 알아야 이것을 타결을 하는 것이니까 그 원인을 좀 캐서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문제는 서로가 상제하고 조정을 잘 하며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고 가장 심각한 것이 전문직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전문직은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니까 교육 행정 6급을 7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 인사관리담당.

그러면 7급으로 하향 조정해서 한

명을 보직한다면 과연 그 한명은 어느 계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초등교육계에 해당하는가, 중등교육계에 해당하는가, 거기에 문제가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예, 장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충호 위원

저는 우리 회의에서 청주시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방법 개선안을 보기 전에 요 며칠전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서 저는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을 하는 동시에 이런 안이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한번 얘기 좀 들어 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방에서 저를 만나서 "그런 개정안이 발표 됐는데 그

것은 참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위원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적에 조금 제 자신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있고난 후 보도기관에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안, 2안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금년 1년은 홍보에 주력을 하고, 또 여론을 수렴을 하고, 또 설명회를 갖고 해서 1안, 2안중에 어떤 것 하나를 결정을 하겠지만 본도에서는 제1안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마땅히 2안으로 그냥 전면 해지하는 방법으로 가며는 어떤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에게 질의합니다.

금년도 청주시내 인문고등학교 선

발 이후에 탈락자가 남·여 각각 몇  
이며, 그 숫자를 알려 주시고요, 도  
내에서 현재 입학시험에 정원 미달된  
학교가 몇 학교가 있으며 어느 어느  
학교인가, 이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분명히 오늘 인사말에도 내가 충북교  
육 발전과 새로운 장전을 전개하려며  
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유기적인  
협동체제가 구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장충호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신  
대로 고교입시 방안에 대한 발표가  
내가 중등교육국장으로부터 보고받기  
를 발표 30분전에 받았습니다.

신문기자 발표 30분전에 보고를 받  
았고, 또 입학시험이 끝나서 과연 청  
주시내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안을  
내용은 마당에 교육위원회에 청주시  
내에서 입학시험 탈락자가 몇 명이라  
는 내용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  
요.

이런 것도 사전에 성의있게 보고를  
해주었으면 굳이 이 회의를 통해서

보고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일전에  
회의 때에도 중등교육국장한테 참말  
로 과격하게 경각심을 울렸는데, 모  
든 것을 성의 없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기관과  
집행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  
루어 지겠느냐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  
고 싶고요, 또 하나가 중등교육국장께  
서 이 입시제도 방안에 대해서 교육  
위원들이 많이 홍보를 해 달라고 했  
는데, 중등교육국장께서 우리 교육위  
원들한테 보고장에서 홍보를 부탁할  
수 있다는 말이 과연 합당한 발언이  
었던가, 이것도 내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새겨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오래 지속이  
돼서 답변을 듣자면 점심시간에 지장  
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점  
심시간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60분간 주겠습니다.

2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6분)

(14시 10분)

● 의장 김영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중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시죠.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주시내 고교입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는 날이니, 일반적인 질의를 하신 것은 다음에 답변을 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주로 입시제도 개선안에 대한 이러한 면으로 치우쳐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일반사항은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고, 청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박병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째, 학습집단의 이질화에 대한 개념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평준화 골격을 볼것 같으려는 그 지방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시를 지원한 학생들은 평준화제도에 입각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고, 또 학교장도 선발권이 상실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 종교적인 것 또는 교통관계, 여러가지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준화를 하다보니까 이질화 현상이 나온 것은 추첨배정을 하다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과 또는 중간학생이 골고루 모이지 않는 그런 상

태이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이질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수업을 전개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수업 받는 학생들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해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질집단, 이것을 해소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성적순으로 뽑는다고 하며는 그러한 이질집단 현상은 해소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동질집단의 형성을 가져 올것 아니냐, 이러한 뜻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제고교 설립은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단 본도에서 교원 대학교에 교원대학 부속고등학교를 금학년도에 개교하려고 했으나 건축 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94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대개 거기가 4학년 모집

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는 관계로, 또 거기에도 자연적으로 우수집단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문제점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6항에 해당하는 하향 평준화의 근거 설명, "어떻게 봐서 하향 평준화라고 할 수 있느냐" 이 평준화라 할 것 같으면 첫째가 학교시설, 또는 학생들의 집단, 또는 거기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질문제, 사실상 평준화가 골고루 참말로 이루어 졌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볼적에 저희들도만 하더라도 인문계 고등학교 청주시내가 어떤 학교를 막론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그 학교의 시설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되풀이 됩니다마는 교원의 집단이 문제이고, 학생들의 집단이 문제입니다.

속된 말로 발도 좋고, 씨가 좋아야 곡식이 잘 익어가고, 수확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보기 때문에 현재의 이 평준화 제도

는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다, 어떠한 성적을 학생들의 학력을 기점으로 해서 하향 평준화나, 상향 평준화나 이것만 가지고는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 이것도 역시 오늘날 민주화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 또 앞으로 정보사회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섯가지의 전쟁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책에서도 봤습니다.

첫째가 경제전쟁, 두번째가 두뇌전쟁, 세번째가 교육전쟁, 그 다음에 기술전쟁 이런 등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과연 수월성 교육의 차원으로 봤을 적에 우수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함으로써 인해서 그 나라의 복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틀이 생기지 않나, 이 평준화로 인해서 우수두뇌를 계발시키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보안책으로 인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설립되어 있는 과학

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나, 또 금년도 3월달에 명칭이 바뀌지는 예술고등학교, 또는 외국어고등학교 등등이 이 평준화를 보다 보완시키고, 또 그 분야에 능력과 소질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따라서 오래 전부터 본도에서도 인문계 계통의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 고교 설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적에는 충청북도의 인재를 양성해서 충청북도내 모든 중앙이나 곳곳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성적이나, 또는 본인들의 능력이나, 또는 자기의 적성 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를 선택했을 경우에 자연히



그 형성되는 그룹집단은 학습집단의 동질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보다 효과적인 학력신장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독자성 추구에 대해서는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학에서도 우수 학생을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조직인 선생님들의 조직도 우수 선생님을 모셔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시설도 다른 학교보다는 더 특수한 그러한 특성을 지닌 시설도 갖춰야 하고, 경영방법도 교장선생님의 자율성에 입각해서 학교 경영이 된다고 하며는 이것은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신장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 재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 과외,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제도가 개선이 되고, 또 새로운 제도가 온다하더라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금년도에 고입시제도에 대한 수학능력 테스트를 전환을 한 것입니다.

수학능력 테스트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중학교의 3학년, 또는 국민학교의 6학년, 9년 동안에 의한 참말로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즉 전인교육,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그러한 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틀을 만듦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앞으로 실시할 청주시내 고입시제도의 개선방향하고, 연계를 이루어 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크게 과거와 같은 입시위주에 입각한, 그러한 과열·과외라든지 이런 것은 해소가 점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한가지는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이 40% 이상 적용이 된다고 했을 적에 현재 학부형님들이나 또는 본인들이 어떤 학교를 감으로 해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아마 학생들 스스로가 더 판단이 빠를 것



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염려스럽고, 좀 사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류 명문고가 세워질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하는 것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답변말씀을 올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마는 현재 평준화제도의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교를 먼저 선택한다고 하는 그것만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만 몰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학교에 과열된 그러한 과외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서 평준화제도 개선에 있어서 법규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또 3월달에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려는 교육부에 평준화제도 개선에 대한 규칙의 개정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교육부로부터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내리려는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부하고는 트라이가 되어 있고 해서 교육부에서도 그 지역의 교육감님이 교육의 실정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아마 거의 위임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지 않을까, 이렇게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순으로다가 선배정한다, 이것은 즉 금년도에 예를 들면 금년도에 청주시내 남·여 학생들이 4,848명입니다, 합격자가.

그래서 금년도 똑같이 시험을 보는 장소도 역시 금년도와 똑같은 형태로 실시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또 그 학교에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게 아니라, 여기 청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동으로 5개면 5개 학교, 6개면 6개학교 공동으로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원서를 중등장학과에

제출할 적에 원서에다가는 어떤 학교에 제1지망, 제2지망 이렇게 기입을 하면 성적이 산출이 되었을 적에 일단 4,848등까지만 합격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선 지원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청주여고에 400명 모집에 500명이 왔다하며는 성적순으로 해서 100명이 탈락되고, 그 100명이 또 제2지망에 예를 들어서 충북여자고등학교에 희망을 했으면 거기로 배치를 하고, 이래서 마지막 잔여인원 이 인원을 가지고 미달된 학교에서는 추첨배정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제1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 제도에다가 다만 선입교를 본인이 선택한다고 하는 그것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준화의 기본지침에 대해서는 아까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개선방안"해서 거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하고 경과를 말씀드리며는 시험배경에 있어서는 고교입시 경쟁에 과열이 있을게 아니냐, 그리고 중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과열과외가 성행이 되어서 재수생이 누적될 것 아니냐, 또는 지역간, 고등학교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가를 한 결과, 성과라고 하는 것은 "고교평준화 평가"라고 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 되었다고 본다, 또는 고등학교간 교육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본다, 또는 고등학교 입시과열이 해소가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등등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뭐냐 하며는 고등교육의 수월성 추구가 곤란하다, 학생의 학교선택 기회가 배제가 되어 있다, 또 학습집단의 이

질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수업운영이 어렵다, 사학의 독자성 추구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학구간, 학군간 교육여건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 즉 특정학구를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하여 평준화 시책의 장점이 적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축소된다,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실행이다, 이겁니다.

고도산업 사회, 국제화 시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준화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교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수 재능학생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월성 교육입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의 선택권을 주어야 되겠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수용해야겠다.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교육감님께서 과감하게 이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장충호위원님께서 제2안의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 그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남·여 탈락자, 그 다음에 미달교, 제가 아까 끝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안으로 했을 적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 평준화제도를 해제하고 학교간에 의해서 선발권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천안이 교육부로부터 지금 평준화 해제지역으로다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안시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현재까지 평준화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춘천과 원주가 평준화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도 극심하게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다가 순경이 한 사람

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주저  
않아 가지고서 평준화제도 개선을 실  
시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그 춘천고등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중 고득점자가  
탈락이 됐다 이겁니다, 탈락이 되고  
보니까, 그 학부형님들이 현재까지도  
교육청 청사에 와서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갈곳이 없다, 그러니 평준화를 좀  
보완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그  
학생들을 구조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도  
부터 그 강원도의 평준화제도 개선에  
대하여 조사 분석을 한 사실도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했을 적에  
또 교육부에서도 지역의 여론이 조용  
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신신부탁입  
니다, 강원도와 같은 그런 현상, 또  
는 천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재발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2의 방안은  
우선 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1 방  
안으로다가 서서히 해서 이루어 진다

고 하려는 조용한 가운데 평준화제도  
가 개선이 될걸로 이렇게 봐서 말씀  
을 드리고, 그러한 뜻으로 봐서 여러  
위원님께 협조하는 뜻으로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린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도에  
금년도 응시학생은 2만 469명이 응시  
를 했습니다, 총 고등학교에 응시한  
학생은, 거기에 따라서 탈락 학생은  
2,275명이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모집을 해야할 11개교,  
그러니까 지방의 사립 인문고, 그 다  
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여기에 11개  
교입니다.

11개교에서 추가모집을 하는 학생  
은 1,04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1,232명이 고등학교를 우선 못 갑니  
다.

그중에서 일신여고에 야간부 200명  
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191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천명이 남습니다.

그 천명중에서 산업체 특별학급에  
지원을 한 학생들이 752명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한 250명이 남습니다.

그 250명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적인 면, 또 지방의 중소기업체 육성면, 이런 것으로 생각해 봤을 적에는 양백여상하고, 석천여상으로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양백여상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밖에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석천여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백여상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의 수는 500명이 필요로 합니다만 약 천명, 원하는 것은 900명입니다. 도중하차를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천명을 요구하고 있고, 석천여상은 200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과 진로지도를 철저히 본인들의 능력과 가정 경제와 적성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진로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학력가지고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로 유도를 하고, 실업계 고등학

교도 못 가는 그러한 학생들을 산업체 야간학교에서 근로청소년으로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다가 유도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답변말씀 올린 것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신지요?

● 의장 김영세

예, 중등교육국장 소관 보충질의 하실분 하시는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위원 질의하시지요?

● 박병해 위원

인문 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의 집단인 그러한 학교가 하나 생겼으면 하는 욕심이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안 이런 것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밟아야 할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가지고 과연 그게 제대로 제1안을 납득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썩 의심이

가는데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이질화 집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 봐서 그 학교나름대로 우열반을 나눠서 지도한다면 이질화라는 말을 안듣고 공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예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 박병해 위원

그런데 현재와 똑같이 점수화 해서 죽 아이들을 뽑았을 때 40%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A라고 하는 학교에 1번부터 100번까지를 뽑아서 1번부터 100명까지가 갔을 때는 70번이나 100번이나 되는 아이들은 손해를 보게 마련이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임이나 학부형들이 "아무리 그 학교가 좋아도 40%의 문제 때문에 아예 지원을 떠난 학교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성행이 돼서 눈치작전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이질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가 되는건데, 이제 그 문제를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몇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현행 제교육 제도상으로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우열반을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안에서 우열반 편성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평준화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에서 동일집단의 학생을 가급적이면 모아 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 의장 김영세

예, 되겠습니까?

● 박병해 위원

내 얘기는 글썄 지금 이렇게 제1안으로다 변경을 할 바에는 현재 골격을 그대로 놔두고, 우열반을 나눌 수 있는 제도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이죠.

지금은 안되지만 제1안이니, 제2안이니 이런 것을 내세우려면 그런 제도로 바꾸어 놓아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애가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것은 교육부에서 교육법이 개정  
이 돼야 되겠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안을  
채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현행 평준화제도의 골격은 유  
지하면서 거기에 모순된 점을 조금이  
라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 박병해 위원

그러면 똑같은 점수가 A라고 하는  
학교에 100번이내에 들어가는 아이들  
이 100번까지 안가고 70번이나 100번  
이나 하는 아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만 학교로 갈려고 한다면 그 집단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은 어떻게 됩  
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본인들이  
거기에 있어서는 점수만 가지고서 저  
희들이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  
에 있어서의 거리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울량동에 사는 학생이 신흥고  
등학교에 지망해서 갈게 아니냐 이겁

니다, 교통편이나 걸어서 가깝고, 또  
그러며는 신흥고등학교에서는 거기에  
몰려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느냐 하고 더 경쟁에 입각해서  
지도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시설도  
나아지고 또 선생님들의 질도 향상이  
되고 또 선생님들의 의식부터 바뀌지  
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  
월부터 12월달까지 금년도에는 이러  
한 문제를 많이 홍보을 해서 청주시  
내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거기에  
적극 호응할 수 있는 홍보의 해로 정  
하고, 2월달에는 개학과 동시에 청주  
시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선생님들, 또는 학부형님들, 또는 사회  
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케이트를 던  
져서 거기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고  
거기에 입각한 자료를 가지고서 3월  
달에는 각계 각층의 인사님들을 모시  
고서 본청 강당에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회를 갖은 다음 여론이 수  
렴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에다가  
저희들 도의 규칙 개정을 건의 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그것이 시행이 되며는 거기에 따른 교원의 인사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환경 시설도 또 개선이 돼서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고등학교가 그 학교나름대로 특색있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제2 외국어를 A라고 하는 학교에서 독어, 불어, 일어를 선택했다고 하며는 일어에 대한 특별교실, 독어에 대한 특별교실, 불어에 대한 특별교실이 있고, 어떤학교는 또 "러시아를 선택해야겠다, 에스파니아어를 선택해야겠다"하며는 그 학과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 그러면 학생들은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만이 노어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럴적에 노어를 선택한 그 학교를 가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집행기관석에서)

● 부교육감 박동기

그것이 최소화시키는 것이지, 완벽

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개선책은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평준화의 단점을 최소화시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 의장 김영세

지금 교육위원들께서는 대체로 어떤 의견이고 하니, 이 입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확실히 개혁이나 변화를 전제로 했을적에 바람직한 것이나 집행청에서 적어도 여론 수렴을 한다던지 시의 주민에게 이것을 납득시킬 적에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충분한 자료가 지금 중등국장 하는 정도의 해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지금 교육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적어도 학습효과가 하향평준화가 되고 학습결손이 이질화 현상에서 왔다 한다면, 그것을 적어도 "우리는 교육의 학습기대치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가 지금 학습 결손 현상이 오

고 하향평준화가 됐다" 이런 것을 더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답변해야지 주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은 지금 현재 주민대표 입장에서 와있고 주민대표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데 집행청에서 지금과 같은 상식의 답변 방법을 갖고는 주민을 이해 못시킵니다.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라, 이겁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과에서.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예, 박위원 다시.....

● 박병해 위원

가령 지금 학교 이름까지 대서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앞으로 점수가 문제되어서 40%의 문제가 개재된다고 하려는 제일 실력있는 아이들은 어디다가 지원을 하겠느냐, 청주고등학교

나 충북고등학교나 이 양쪽을 많이 지원 하리라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러면 청주고등학교 근방에 사는 아이가 점수가 형편없어도 거기에 지원을 하겠느냐, 이걸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신흥고등학교만 자꾸 따져서" 신흥고등학교 근방에 있는 아이들은 신흥고등학교 간다,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청주고등학교 옆에 사는 아이들도 우수한 아이들이 청주고등학교로 많이 올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할때, 그 아이도 거기다 지원을 하겠느냐 할때 거기다 안할거예요 이거.

또 하나는 40%라고 하는 점수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 할때 학급 담임이나 학부모들이 웬만한 성적가지고는 청주고등학교나 충북고등학교 지원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때는 애들의 성적은 좋아도 40%라는 것 때문에 탄 학교에다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때 벌써 이질집단의 학교가 되지 않느냐, 또 어느 학교를 아주 참 우

수한 학교로 만들어서 중복의 이미지를 살리고, 대학을 많이 보내는 이런 학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점수화 한다고 한다면 이거 바람직한 얘기에요. 이질화가 돼서는 안되죠. 이게, 100명 모집중에 100등이라 손해가 되더라도 지원하도록 해야 그 목적달성이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며는 "현재 중학교 아이들의 과외수업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중학교만은 인간교육을 위해서 과외수업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왔는데, 과연 과외수업을 안하고 그 제도에 부응해서 학생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 평준화제도 개선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면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극소화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각계 각층을 통하여 어떤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저희들 전부 수렴을 하고 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은 또 뭐나 하는 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계속 금년도에는 연구를 할겁니다.

금방 그것이 연구가 다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예요.

● 의장 김영세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이다음에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보완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병해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그러면 다른 위원 또 말씀하세요.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장충호위원 질의하세요.

● 장충호 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1안에서 2안으로 막바로 간다면, 즉 해제한다면 "강원도 춘천시, 원주, 천안의 경우 이미 해제가 됐지만서도 학부모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서 실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그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골자를 좀더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가 생각할 적에는 현재 학생의 학부모도 중요하지만서도 미래의 학부모들, 지금 얘기하는 반대하는 학부모가 숫자적으로 가상해서 만명이나 미래에 앞으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낼 학부모들은 만명이 아니고 몇 만명이 될겁니다, 이분들이 또 다 반대할 것인가, 이런걸 좀 알고 싶고,

앞으로 "여론을 수집하고, 금년 1년을 연구기간으로 두고서 많이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공청회나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서 1안이나 2안중에서 그냥 1안까지도 반대하는 학부모가 있다고 한다며는 지금 집행청으로서 이것을 밀고 나갈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2안을 채택했을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천안과 춘천시, 원주시는 교육부에서 지역적으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천안 시민들의 여론에 부딪쳐서 여태까지 이루지를 못하고 현실점에 와서는 시의회에서 평준화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들고 나와서, 천안도 무슨 현상이 나왔느냐하면 천안 시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다 공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종에 같은 도내에서 유학을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껴서 시의회에서 지금은 개선책으로서 충청북도에서 하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산에서도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부산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서울에서는 "앞으로 입시제도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학교 내신 성적 가지고서 치르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법 개정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 춘천에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 하려는 갑작스럽게 평준화제도를 해제 하고 나니까, 옛날과 같은 명문고 비슷하게 춘천고등학교로다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에 300점 320점이 탈락하는 그러한 현상과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한 학부모님들이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우선 점차적으로 그 문제점을 최소화되게 줄여나가는 방안으로써 1안이 우선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장충호 위원

예, 모든 것이 그 시대 조류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1안, 2안을 지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이런 안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1년동안 이것을 연구해가지고서 실행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듣기에는 "이 세군대에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있

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집행청으로서의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춘천하고 원주는 시행을 했습니다, 몇 년전에.

● 장충호 위원

했어요, 그러니까 1안, 2안중에 모든 연구한 결과 "이게 좋다" 하고 결정되면 계속한 것이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려는 밑고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보충질의.....

(부의장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광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 부의장 김광수

지금 현재 충북에 비평준화 지역이 충주는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내에는 평준화 지역이라서 이것을 지금 현재 개선해 보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례로 봐서 충주고등학교는 금년도 서울

대학에 32명이 합격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지금 현재 그래도 고등학교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청주 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에서는 서울 대학교에 이번에 입학한 실례가 어떤가 좀 듣고 싶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주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대등소이 하게 32명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요.

청주시내에서 세광고등학교는 13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청주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청석고등학교, 거기는 대등소이 10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청주여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천여고가 금년도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6명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김광수

예, 제가 왜 참고적으로 그것을 묻느냐 하려는 충주는 청주가 아닌, 충

북에서 볼 때는 그래도 변두리인데, 충주고등학교는 32명이나 대량 합격을 했고요, 충주여고도 서울대학교 한 명이고,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여기가 상당히 많이 진학을 한 실례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불적에 기왕 우리도 평준화를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평준화를 없애려면 완전히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또 언젠가는 이것을 비평준화로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러한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냥 완전히 비평준화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인재양성하는데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재회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이재회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 이재희 위원

지역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평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



천여고도 서울대학을 가고 제천고등학교도 서울대학을 가는데, 만약에 청주시내의 평준화를 풀고 선발을 한다면 역시 북부지역은 다시 10년 뒤로 후퇴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있을 때 보며는 제천중학교 5등까지는 청주고등학교, 의림여중 5등까지는 청주여고, 그래서 청주고등학교 커트라인이 제천여고 수석이었습니다.

그때는 서울대학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못한건데 그나마 지금 북부지역은 소외지역이면서도 요즘에 좀 말씀드린대로 제천여고가 몇 명, 이렇게 자위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지역은 작고, 인구수가 작다손 치더라도 다시 이런 쓰라림을 또 주고, 그 지역에만 유학이나 이러한 병폐가 또 나오는데, 이런 것도 어떤 미봉책이 있으면 미봉책을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아주 엄격히 청주시내만 한정을 한다던지, 위장전입을 막는다든지 40% 적용을 한다해도 역시 제천에서 중학교 1등하던 놈은 청주고등학교 나와서 1년간만 지나면 거기서도 순위

같은건 나옵니다 그 놈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겨우 평준화로 자위하는 지역도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보완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아까 그 평준화의 취지배경을 설명하실 때 입시과열 방지도 해소가 됐고, 또 과열과외도 배제가 됐고, 또 지역간·학교간의 격차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평준화의 취지가 전부 없어져서 다시 비평준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슬쩍 넘어가시기를 전인교육 얘기는 안했습니다, 전인교육 얘기를 빼놓으셨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전인교육이 되겠느냐, 우리가 늘 말씀에 "전인교육" 말로는 잘 합니다, "교육본질 추



구" 내세우기는 이렇게 내세우면서 지금 과연 이것이 전인교육에 가까워지는거나, 멀어지는거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게 입시위주 교육이나, 아니냐 이것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때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입시위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고, 그러면서 무슨 전인 교육을 얘기하며, 교육본질을 추구하느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대안이 뭐냐, 즉 입시위주로 안하면서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대안을 아까 국장님께서 슬쩍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더욱 저는 동감이 갑니다.

저도 미리 생각하고 있던 얘기인데 즉 학생들이 선택을 할때 거리만 가지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를 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때 사과를 살 사람이 배를 사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목적이 있겠조, 그럴때 상품이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선택권에는 상품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똑같은 것 같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럴때, 학교가 특성화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내 6개 인문학교가 있다고 하며는 외국어에 특색을 둔다든가, 혹은 국어에 특색을 둔다든가, 이 학교 가며는 수학에 관한 모든 시설이라든가 교사진이 수학에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다, 아니면 일반사회 과목에 특수한 교사진이 있다든가, 혹은 예체능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학교의 특성화를 먼저 시켜놓고 난후에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요구해야지, 그냥 똑같은 학교를 놓고서 "골라라" 하며는 이것은 거리만 가지고 따지라는 것인데, 여기서 별로 발전될 것같지는 않고, 역시 입시위주의 그 파란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이냐, 또 전인교육의 흔적은 사라질 것 아니냐, 조금 살아나던 전인교육이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후퇴가 일어날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에서 우선적으로 학교가 특성화가 된 다음에 1안이든지, 2안이든지 돼야지, 그렇

지 않고는 "교육의 후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물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교육재정 투자면으로 봤을 적에 참말로 어떤 학교를 설립하고자 할적에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춘뒤에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현 저희들 교육투자의 재정상으로 봤을 적에는 역시 우리 도만 하더라도 미약한 재정속에서 특수 목적고등학교가 5개나 됩니다.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외국어고등학교, 또 충주의 중산외국어고등학교, 이 예술고등학교의 시설문제도 지금 타 도의 사립 예술고등학교에 비하면 시설이 엄청나게 미약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무용·미술·음악, 음악도 성악·악기 등 여러가지 분야로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그래도 우리도에서 양성해서 국제무대에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입시위주 해소방안을 어떻게 하려는 그래도 좀 줄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 입시위주라고 하는 교육이 아주 완전히 뿌리채 뽑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앞서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고, 또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또 두뇌에 따라서 도저히 대학에 못가는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수 있는, 그러한 성인들의 의식구조가 개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개혁은 제가 봤을 적에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교사들이 먼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교사들 자체가 "어떻게 하려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유능한 인간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은 일선에 계시는 교사들이 교육개혁을 해야지 행정기관만 가지고서, 또 교육부에서만 가지고서는 개혁은 이루

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계에 계시는 분이나, 정치계에 계시는 분이나, 또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 학부모, 다같이 공동체 의식으로 이 교육계에 지금 뿌리박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서서히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다음 분 또 있으십니까?

이 입시문제는 우리가 교육정책중에서도 가장 제일 큰 변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등은 확실히 우리 교육위원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큰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간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현행법규로 미비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이와 같이 교육위원님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증거가 모아져 가지고 완벽한

제도 개선이 모색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아까 내가 지적한 대로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지금 교육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 어느 분이라도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집행청에서는 오늘 그만한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 보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막연히 자기 혼자 추리 자기 혼자 교육관만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이렇게 내세워서 납득을 못 얻습니다.

내가 한가지 또 지금 나국장님한테 하나 짚어드리겠는데, 아까 분명히 "탈락자를 남·여로 구분해 달라"고 했고, 몇 명이 탈락된 것인지를 입시제도 개선안에 참고자료로 삼으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천명이 완전 탈락이 됐는데 산업체 부설학교에다가 750명을 넣고, 석천여상, 양백여상에 다 넣는다고 했는데 여긴 여학생만

뽑는데예요, 내가 알기는 여학생만 뽑는덴데 남학생 탈락자는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여학생은 이렇게 하면 인원이 오히려 모자라고 남학생 탈락자는 지금 어디로 갔느냐, 바로 답변의 자세가 정확한 답변을 할줄 알아야지, 이렇게 막연히 쓸어 넘긴다고 해서 교육위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아니, 그것은 지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취급하고 있는 과에서 남·여 공학 학교가 많기 때문에 남·여별로의 통계가 아직 못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하나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 의장 김영세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석천 여상과 양백여상에다가 다 넣으면 해결이 된다는 말은 안된다 그 얘기에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또 한가지 제가 사과말씀 올릴 것

은, 이 고교입시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금 외부에 비취가지고서 언론기관에서 독촉이 하도 심하고 해서, 교육위원들께 사전에 여러가지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된것은 교육감님이 부대끼다 못해서 갑작스럽게 보도진에 좌담회를 가진 사항이 돼서,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지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 질의답변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3시 30분까지만 해서 그 시간에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나머지는 이 다음 회기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혁풍위원 질의에 대한, 교육개혁에 대한 답변이 있지요?

● 부의장 김광수

그건 이것만 하기로 하고 다음에

하기로 했잖아요?

● 의장 김영세

아니, 그러니까.....

● 박병해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문은 지금 해도 됩니까?

● 의장 김영세

아니, 아까 우리가 질의 한것도 답변은 다 못들었으니까.....

● 박병해 위원

그렇습니까?

● 의장 김영세

예, 질의 한것도 다 답변은 못들었으니까, 일반 입시개선책 문제는 마치는 겁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물은 것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을 못들었는데, 충주지역에 탈락자 그 주덕고등학교.....

● 의장 김영세

그럼 이상일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들은 후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다음 회기 때에 나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에서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이상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의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적에 실고 육성책으로서, 즉 저희들 도는 '94년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 50%, 또 인문계 고등학교 50%의 비율에 발맞춰서, 또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또 45%가 공업계열 육성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의 추가모집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몇 년전부터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 실정으로 봤을 적에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의 후기모집 대상학교에 학생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한다고 하려는 197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몇명 몇명씩 그렇게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질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응시해서 떨어

지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또 청주시내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응시를 해서 거기서 또 떨어진 학생들이 과연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 이상일 위원

그것은 충주지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충주고등학교에서 떨어진 107명은 충주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며는 거의 상위권에 들어 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주고등학교에서 떨어진 107명, 여고에서 떨어진 10명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학력이 나쁜 아이들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질 좋은 아이들인데,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충주는 공고나 상고가 인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인원이 남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재수를 해서 충고나 여고를 또 볼 아이들이 아무데나 들어갈 아이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 애들은

좋으나 주덕 인근의 4개면 신이면, 노은면, 이류면, 주덕면, 그 부근의 농촌 애들은 충주고등학교에 갔다가 떨어졌으니까, 다만 18명만이라도 추가가 모집을 해주면 거의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해주니까 진학도 못하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주덕 고등학교가 애당초에는 학년당 5학급으로 15학급 규모였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맞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15학급 규모였었는데, 작년도에 3학급이 미달이 되어서 지금 현재 2학급을 유지하고 있지요?

● 이상일 위원

예.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이렇게 자꾸만 감소추세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학생수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학급 증설을 또 하고 줄었다고 해서 학급을 감축하고, 이렇게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 이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급을 증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것이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글쎄 충주지역에도 충원고등학교는 상당수가 지금 미달사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막론하고 그 지역의 충원계획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결정되어서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봐집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위원여러분께 한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력진단 결과를 6개월째 끝었습니다, 6개월째 끝어서 그간에 회의 상정도 세번째 오늘 상정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만서도 오늘 인력진단 결과에 대하여 권혁풍위원이 아까 질의 한 것, 이젠 오늘로 마치고

마감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마치고 일반업무 계획에 대한 답변은 이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 권혁풍 위원

이 시간 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마져 답변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 의장 김영세

이것을 하며는 길어지는데 그러면 너무 지루하실테고, 또 바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인력진단 결과에 대해서만 어떻게 듣도록 해보시죠?

● 권혁풍 위원

예.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 인력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진단의 핵심이 "충분한 인력이 있는데는 모자라는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직을 금년도 정원 조정을 하면서 14개 기관에서는 그 정원이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14개 기관을 감축하여서 부족되는 주로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쪽으로 13명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의 증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교육위원회 의 사국에 7급 정원이 하나가 늘지만 그 정원을 저희들이 교육행정 기관쪽에서 감축을 하여서 의사국에 증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행정직 증원이 하나도 없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29명을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 단재교육원,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등 주로 교육 행정기관에서 45명을 감축하여서, 아

가 앞에서 말씀드린 중·고등학교 당 직보강, 또 그 기능직이 부족한 학교에 74명을 늘리면서 45명의 감축된 인원을 학교쪽으로 돌려가지고 늘리므로 해서 순수 증원은 29명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감사한 결과를 정원조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교육 전문직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근본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에 추가 정원이 증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족 인력은 52명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기관의 증가에 따라서 5명이 요청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학교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지원할 전문인력이 17명, 교육방송 활용의 일반화될 도모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17명, 종합야영장, 학생회관 등 조례상의 미

확보 정원이 5명 등 해가지고, 이것이 52명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정원의 승인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정원을 안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의 정원증원시는 총무처 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정부기구 인력 억제 방침에 따라 정원확보가 그렇게 어려워서 금년도 정원에 교육전문직이 4명 밖에 지금 가배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의하면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보구현"이란 전제 아래 기구·인력의 원천적 억제를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1명을 신청했지만 4명밖에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지역 교육청 인사담당자 직급의 하향조정과 관련하여, "6급을 7급 행정직으로 교체해서 배치를 하는데, 어느 계에 배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교육청에는 인사담당자가 6급 한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급하고 기능직하고 실제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직은 단순 조무원이 아니라 사무능력이 있는 사무보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둘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6급이 나오고 7급이 들어가며는 7급 1명, 기능직 사무능력이 있는 사람 1명 해서 2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교육청에서 초등계에 7급을 넣던, 중등계에 7급을 넣던 기능직을 초등계에 넣던, 중등계에 넣던 하는 것은 지역 교육청 학무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배치가 될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라, 저기에 넣어라" 하는 것은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직급 하향조정에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이 앞으로 인사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보조업무만 한다며는 이 7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 사무보조가 해 나가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이상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권혁풍 위원

전문직을 51명 요청했는데 4명 밖에 안왔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 권혁풍 위원

과연 전문직으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뭔가 우리 교육에 엄청난 마비가 올것 아닌가 보는데, 어느 정도에 마비가 온다고 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지금 그래서 학생회관 같은데는 정원이 전혀 없어가지고 단재교육원과 교육연구원의 정원 1명씩, 연구사 2명을 임시로다가 그쪽으로 가배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방송관계라든지, 특수교

육 분야라든지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전문직에 대한 증원 요청은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인력이 부족하느냐 하는 건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되겠습니까?

● 권혁풍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예, 권혁풍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계획에 따른 질의는 정식 질문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청에서 아마 준비도 덜됐을 것으로 알고, 시간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양해해 주시며는 집행청으로 하여금 준비해서 좀 더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양해

<p>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p> <p>(의사봉 3타)</p>	<p>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감사수, 장충호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p> <p>(의사봉 3타)</p>
<p>(15시 20분)</p> <p>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p> <p>● 의장 김영세</p> <p>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p> <p>감사수, 장충호,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p> <p>예, 이의 없으시지요.</p> <p>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충청북도</p>	<p>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p> <p>이것으로 제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p> <p>(의사봉 3타)</p> <p>이상으로 제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15시 21분 폐회)</p>
<p>○ 출석위원수 : 11명</p> <p>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감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p> <p>○ 출석공무원 : 17명</p> <p>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 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p>	

- 의사일정(안) : 별첨1.
- '93년도 주요업무계획 : 별첨 2.
- 청주시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선발방법 개선(안) : 별첨3.
- 교육자치발전을 위한 중점사업계획 : 별첨 4.
-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요약) : 별첨5.
-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내용 처리현황 : 별첨 6.
- 우암상가사고관련 학생인명피해상황 : 별첨 7.





# 議 事 日 程 ( 案 )

第 19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 臨 時 會 )

1993. 1. 19. ( 1 일 간 )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p>1. 19 ( 화 )</p> <p>14 : 30</p>	<p>※ 개회식</p> <p>【 제1차 본회의 개의 】</p> <p>1. 제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p> <p>2.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p> <p>3. 정주시일반계고등학교신입생선발방법개선추진안 보고의 건</p> <p>4. 기타 안건처리</p> <p>【 제1차 본회의 산회 】</p> <p>※ 폐 회</p>	<p>회 기</p> <p>1. 19. ( 1 일 간 )</p> <p>( 5 일 간 )</p>



(별첨 2)

1993年度

# 主要業務計劃

忠清北道教育廳

# 目 次

I. 一般現況 .....	73
II. 忠北教育의 志向 .....	79
III. '93 主要業務計劃 .....	80

# I. 一般現況

1. 地 域 與 件
2. 行 政 組 織
3. 學 校 現 況
4. 學 校 法 人 現 況
5. 財 政 現 況

# 1. 地域與件

- 面積 : 7,436 Km<sup>2</sup>(全國의 7.5%)
- 人口 : 1,447 千名(全國의 3.3%) / 家口數 374千
- 行政區域 : 3市 10郡 162邑面洞
- 就業構造 : 1次產業 31.3%, 2次 20.4%, 3次 48.3%
- 地域의 特殊性
  - 小白山脈과 車嶺山脈 사이의 中部 內陸에 位置, 山地 79%
  - 大淸湖, 忠州湖 / 俗離山, 月岳山, 小白山 / 豊富な 水資源과 觀光資源
  - 3個의 高速國道가 通過하는 交通의 要衝地
  - 首都圈 隣接地域으로 農·工團地의 擴張
  - 忠·孝·禮를 崇尚하는 教育·文化의 高장
  - 世界最古의 印刷文化 發祥地 : 淸州 興德寺址
  - 農村人口 減少에 따른 學生 激減





### 3. 學校現況

'93. 1. 1. 現在

區 分	學校數	學級數	學生數	教員數
計	879	8,125	312,124 全國對比3.2%	13,017
幼 稚 園	374	608	16,127	689
國 民 學 校	315	4,196	143,194	5,206
中 學 校	110	1,687	77,594	3,463
高 等 學 校	70	1,432	68,883	3,377
特 殊 學 校	8	105	1,039	163
產業體附設學校	2	47	2,552	64
特 別 學 級	(4)	50	2,735	55

### 4. 學校法人現況

'93. 1. 1. 現在

法人數	學 校 數					教員數	學生數
	國	中	高	特殊	計		
24	1	20	19	2	42	1,613	39,469

## 5. 財政現況

○ 款別內譯

'93. 1. 1. 現在

(單位：千圓)

歲 入		歲 出	
款 別	金 額	款 別	金 額
1. 地方教育財政交付金	285,472,001	1. 教育委員會費	553,940
2. 地方教育讓與金	75,505,000	2. 教育行政費	23,174,196
3. 教育環境改善交付金	1	3. 教育事業費	12,502,232
4. 國庫支援金	3,618,845	4. 學校費	309,851,508
5. 非法定轉入金	51,399	5. 私學支援費	23,939,548
6. 支援金	508,225	6. 施設費	39,548,316
7. 財產收入	148,216	7. 諸支出經費	19,726
8. 入學金及授業料收入	26,871,693	8. 豫備費	5,703,435
9. 使用科及手數料收入	320,165		
10. 雜收入	4,207,833		
11. 地方教育債	1		
12. 移越金	18,480,000		
13. 住民負擔金	109,522		
合 計	415,292,901	合 計	415,292,901

○ 性質別 內譯

(單位：千圓)

區 分		豫 算 額	構成費(%)	備 考
歲入	計	415,292,901	100	
	自 體 收 入	50,137,430	12.1	
	依 存 收 入	365,155,471	87.9	
歲出	計	415,292,901	100	
	人 件 費	303,045,144	73.0	
	學 校 運 營 費	27,084,308	6.5	
	私 學 支 援 費	23,939,548	5.8	
	施 設 費	39,548,316	9.5	
	行 政 費	3,450,192	0.8	
	教 育 事 業 費	12,502,232	3.0	
	豫 備 費 其 他	5,723,161	1.4	

## II. 忠北教育의 志向

### 教育의 目標

21世紀를 主導할

自主·創意·道德的인 健康한 韓國人 育成

### 教育行政의 方向

- 教育의 本質을 追求하는 教育
- 未來 指向的인 教育
- 平生 教育의 基盤을 造成하는 教育
- 漸進的인 教育 體制 改善

### 教育行政의 信念

- 教授·學習이 強化될 수 있도록 快適하고 便利한 教育環境의 造成
- 密度 높은 教育이 되도록 優秀한 學習 機資材 支援
- 教育의 質을 높이기 위한 敎員의 資質 向上

### III. '93主要業務計劃

1. 學校運營의 自律性 保障
2. 學校教育의 正常化와 個性과 能力의 伸張
3. 道德性 涵養과 民主市民 教育의 實現
4. 統一 對備 教育과 國際化 教育의 強化
5. 科學·技術教育의 充實
6. 教員의 專門性 提高와 資質 向上
7. 教育 與件의 改善



# 1. 學校運營의 自律性 保障

- 敎員의 專門性에 바탕을 둔 敎育現場의 自律性 保障

## 가. 學校長 中心의 自律行政을 實現한다.

- 學校長의 透徹한 敎育觀에 의한 指導性 發揮 : 人間關係 形成
- 學校運營에 대한 意識轉換 세미나 開催 : 幼·國·中·高校(園)長 879名
- 敎員의 使命感 및 責務性提高 : 校長 勤務地常住, 敎師와 對話時間 運營

## 나. 人和中心의 民主行政을 具現한다.

- 民主的인 學校 運營 : 폭넓은 意見收斂 / 民主的 意思決定
- 公開行政의 實現 : 人事 / 財政

## 다. 現場 優先의 支援行政을 積極 展開한다.

- 敎壇中心의 支援 優先 : 學習機資材 購入支援
- 授業環境의 未來指向의 改善 : 열린敎育/즐거운 敎室/敎室의 多機能化
- 敎育情報 센터 運營(示範敎育廳 : 鎭川) : LAN(敎育廳網)設置  
- CAI 資料, 敎育評價 資料提供 및 電算處理, 敎育情報 交換

## 라. 誠實하게 努力하는 敎職員이 優待받는 風土를 造成한다.

- 公職者 意識 改革 : 새 질서 새 생활 運動展開, 公職姿勢 刷新敎育
- 尊敬받는 스승상 定立 : 自己研鑽 活性化
- 模範 公務員 發掘 表彰

## 마. 家庭 및 地域社會의 敎育的 機能을 提高한다.

- 學父母, 地域人事 對話 擴大 : '住民의 스승화' 運動展開/學校行事に 同參
- 家庭 및 地域社會의 敎育的 機能 擴大 : 學父母 敎育 充實
- 敎育自治에 대한 올바른 弘報 : 忠北敎育消息, 學校新聞, 校誌 發刊

## 2. 學校教育의 正常化와 個性과 能力의 伸張

- 個人的 素質을 啓發하고 知的, 身體的發達을 돕는 教育의 本質追求
- 個人的 潛在된 能力을 調和롭게 發展시키고 個人差를 尊重하는 教育

### 가. 教育課程을 正常的으로 運營한다.

- 教育課程의 創意的 運營: 教科, 特活, 行事 / 地域, 學校 實情의 考慮  
- 時間(單位)配當 遵守 / 第6次 教育課程의 研修 徹底
- 特別活動 運營의 活性化: 多樣한 特別活動班 編成 / 繼續的인 指導  
- 學校, 地域教育廳別 藝能綜合發表會開催: 幼·國·中·高校生 參與
- 地域化 教育課程 運營 徹底: 地域教育課程 開發委員會 組織 運營
- 國校 教科專擔制 運營: 地域教育廳別, 學校別로 自律的 組織 運營

### 나. 教授·學習方法을 改善하여 思考力과 探究力을 기른다.

- 學習方法 轉換을 위한 研鑽會 開催: 2回 1,000名
- 討議學習方法의 一般化: 討議形態, 方法의 多樣한 適用
- 勞作學習의 實踐: 생각하고 / 짓고 / 만들고 / 키우고 / 뛰는 학습
- 教育放送 活用으로 教授·學習方法 改善: 教育放送資料 普及 센터 運營
- 열린교육/즐거운 教室運營: 地域教育廳 示範學校(級)運營/優秀 事例 普及
- 컴퓨터 補助學習의 適用 擴大: 프로그램 普及, LAN設置-全地域教育廳

### 다. 學生들의 成長 發達이 올바르게 測定되도록 評價方法을 改善한다.

- 多樣한 評價道具와 方法適用: 目標指向評價 / 形成評價 重視
- 論理的 思考, 探究力을 伸張하는 評價實施: 主觀式 評價 擴大
- 公正한 成績管理: 指導教師의 直接出題 / 採點 - 年 1~2回  
- 評價結果의 教育的 再投入

라.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讀書 與件을 造成한다.

- 讀書與件의 造成：各級學校 圖書館, 圖書室, 學級文庫 擴充
- 좋은책 많이 읽기 運動展開：讀書感想文, 讀書優秀者 表彰

마. 秀越性を 追求하고 特殊才能兒 教育을 體系化한다.

- 個人的 潛在能力 啓發：早期發見 / 카드 作成 / 國·中·高 連繫指導
- 學生 個人別 能力에 따른 最適의 프로그램適用 指導：年中指導
- 特別領域 專門 指導：特殊才能兒 特別教育 프로그램 適用
- 特殊目的 高等學校 教育의 內實：科學·外國語·藝術·體育高校

바. 全員 體育을 實施하고 保健·體育教育을 充實히 한다.

- 體育時間의 遵守와 質 높은 授業展開：單元別 成就基準表 作成活用
- 1校 1技 및 1人 1運動 積極 推進：全員體育 實施
- 指定種目 育成 및 體育英才의 科學的 指導
- 學校保健教育 徹底
- 給食學校 運營 內實 및 指定 擴大：總132校

사. 進路教育을 活性化하고 學生相談活動을 強化한다.

- ‘進路時間’, ‘進路의 날’ 設定運營：進路時間一月1回 / 進路의날一學期1回  
- 進路에 대한 學父母의 올바른 認識 提高：學生善導 學父母教室 運營
- 進路診斷과 巡廻指導의 實施：適性檢査 分析活用/高校進路巡廻 指導
- 進路教育資料 製作 普及：3種 57,000部
- 學生相談活動 強化  
- 學校長 및 擔任(教導)教師 相談活動 活性化  
- 學生相談 自願奉仕制 運營：基礎教育 및 再教育：2回

아. 幼稚園 教育의 內實을 기하고 特殊教育의 機會를 擴大한다.

- 幼稚園 就園 機會 擴大：3~5歲
- 幼稚園 教育의 內實：幼兒教育資料 展示會, 幼稚園 示範授業 發表會
- 特殊教育의 機會 擴大：特殊學級 增設

### 3. 道德性 涵養과 民主市民 教育의 實現

- 올바른 人格形成을 위한 健康한 道德的 心性 啓發
- 人間性的 回復과 健全한 價値觀을 일깨워주는 情意的 教育의 強化

#### 가. 節制教育을 強化하여 바람직한 價値觀을 일깨워준다.(새질서 새생활 운동)

- 節制教育의 強化：過保護 / 過消費 / 無規制 風土刷新 - 家庭連繫 指導
  - 禮節教育：基本生活 習慣 指導 - 民主市民의 資質 涵養
  - 經濟教育：勤儉貯蓄 - 先進經濟國의 跳躍 기틀 造成
  - 秩序教育：遵法精神 鼓吹 - 學校 / 家庭 / 社會에서 自律實踐力 育成
- 節制教育 行事：節制生活 事例發表會 開催 - 11月

#### 나. 社會生活規範이 內面化되도록 實踐한다.

- 基本生活習慣 形成 指導資料 活用：獎學資料 70號 活用
- 社會生活規範의 重點指導：國·中·高校 各教科 全領域
- 師弟同行의 道德實踐運動展開：1日1善勳行, 週生活目標 決定-實踐-反省
- 道德實踐 模範學生 및 教員 發掘 表彰：어린이 날, 스승의 날
- 各種研修時 師道教育 및 道德性涵養 教育프로그램強化：研修時間의 10%

#### 다. 活動體驗을 통하여 健全한 學生文化를 形成한다.

- 討議文化定着：民主的會議方法의 持續的指導-獎學資料 第55,56號 活用
- 學生自治活動의 活性化：生活目標 實踐, 建議事項 收斂
- 學生 指導力 培養修鍊 強化：高校生 2,520名
- 學生 修鍊活動의 活性化：多樣한 自體 프로그램 開發
  - 靑少年團體의 活性化 / 1 學生 1 團體加入 勸獎：960대 60,000名
  - 學生野營修鍊 活動：國·中·高校生 160,000名
  - 學校·地域 生活館, 禮節館 運營：國·中·高校生 65,000名

라. 中原의 精神文化 繼承으로 民族 自尊意識을 高揚한다.

- 나라사랑 教育의 強化 : 國旗·나라꽃·애국가, 바로알고 바로부르기
- 傳統文化繼承 發展
  - －民俗잔치 開催 : 地域教育廳別
  - －傳統文化 傳承學校 運營 : 國·中·高 48校
- 鄉土의 偉人 先烈의 業 繼承指導 : 指導資料 開發普及
- ‘忠北精神文化의 기둥’ 發刊 活用 : 1,000部
- 忠清文化巡廻踏查 擴大實施 : 忠北一圓 文化遺跡地 - 國400名, 中400名

마. 學生이 自律能力을 갖도록 生活指導를 強化 한다.

- 健全한 價値觀 定立 : 訓話 및 招請教育
  - －文藝活動, 體育行事的 定着
- 學生非行 豫防 : 問題惹起 豫想學生 / 缺損家庭 / 無斷缺席者
- 校內·外 不良서클 把握 : 學校長 責任下에 解體 指導
- 藥物 誤·濫用 豫防 : 害毒에 대한 弘報 - 教師研修 200名
- 不良 漫畫·書籍·비디오 追放
  - －關係機關 合同指導 : 年2回 實施
- 學生保護를 위한 校外生活指導 : 登下校指導
  - －地域善導委員會別 指導
- 올바른 性教育의 實施 : 健全한 性倫理觀 定立 / 性被害豫防指導徹底
- 追風·修學旅行·健全海外旅行의 教育的 實施
  - －學生 事前教育 徹底 / 學生을 통한 學父母 啓導

바. 交通安全教育和 安全事故 豫防指導를 徹底히 한다.

- 交通安全指導 : 現場教育實施 / 交通班, 綠色 어머니회 活性化
  - －交通安全 教育實習場 利用 : 地域教育廳別 設置
- 安全事故 豫防指導 : 安全守則 指導

## 4. 統一對備 教育과 國際化 教育의 強化

-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과 民族의 同質性回復
- 國際社會 變化에 대한 時事 契機 教育의 徹底

### 가. 自由民主主義 價値와 體制 優越性에 대한 信念을 鼓吹한다.

- 人間의 尊嚴性, 自由·平等, 他人意思尊重 教育: 教科關聯 體系的指導
- 市場經濟 原理 中心의 經濟教育 強化: 自由民主主義 優越性 指導
- 統一·安保教育指針書 活用: 均衡的視覺培養 / 獎學資料 第68號 活用
- 時事 契機教育의 強化: 國內·外情勢 指導 / 統一·安保關聯行事實施

### 나. 民族共同體 教育을 통한 統一意志를 涵養한다.

- 統一力量의 培養: 民族和合과 同質性回復 / 民族共同體統一方案 教育
- 北韓의 實狀 바로알기: ‘오늘의 北韓’, ‘統一의 길’ 積極活用

### 다. 새로운 世界市民的 意識을 갖도록 國際理解 教育을 強化한다.

- 外來文化에 대한 主體的 理解와 受容: 外來文化의 批判的 理解
- 國家間의 利害關係와 市場開放에 對處: UR對備教育, 國產品愛用 教育
- 外國語教師 海外研修 擴大實施: 國·中·高 52名
- 國際理解教育 道指定 示範學校 運營: 結果의 擴散

### 라. 未來透視的 眼目에서 外國語 教育을 活性化한다.

- 外國語 特活班 運營의 內實: 國·中·高校生
- 外國語 會話大會 및 外國語 學力競試大會 開催: 國·中·高校生
- 高校 第2外國語 複數選擇 擴大 / 多國語選擇 示範地域運營
- 外國語高校 教育 強化-教育課程 編成 運營 徹底



## 5. 科學·技術教育의 充實

- 産業社會의 變化에 副應하는 科學·技術人의 養成
- 科學的이고 論理的인 思考를 위한 質 높은 實驗·實習 機資材의 充分한 確保와 實驗·實習 위주의 學習 強化

가. 大田世界博覽會를 契機로 科學·技術의 새로운 跳躍을 摸索한다.

- ‘93 科學教育의 해’ 特別事業推進：事業選定 積極推進 및 弘報
- ‘大田 익스포 ’93’ 觀覽 및 弘報：敎員, 學生
- 科學教育 一般事業 推進：初·中等 科學教育의 活性化 契機 提供

나. 科學科教育課程을 充實히 運營하도록 한다.

- 實驗·實習의 徹底：實驗案内書 活用 및 報告書 作成  
- 科學教育 示範學校 運營 / 授業方法 改善 一般化
- 移動科學室의 擴大運營：科學車를 活용한 巡廻指導 / 主婦科學敎室 擴大

다. 科學·技術 實驗室과 科學敎具를 擴充한다.

- 市·郡科學館 建立：11個 地域教育廳 / 1年次 4 個地域教育廳 完工  
- 科學實驗室, 컴퓨터실, 展示室 등 - 規模944㎡ 이상
- 遊休敎室의 科學室, 技術室 轉換：各級學校
- 科學實驗·實習費 支援：敎師 意見收斂 및 適期 執行  
- 實驗·實習費의 增額支援：豫算901,379천원 / 育成會費中 5% 이상
- 老朽 科學敎具의 廢棄處理 및 敎具擴充：物品管理法에 의한 과감한 廢棄  
- 科學敎具의 擴充：90% 確保(’94년)

라. 科學·技術 競進大會를 實施하여 探究能力을 伸張한다.

- 靑少年科學競進大會：模型航空機工作 外 7種, 時期 4-8月
- 數學·科學 競試大會：國·中·高校 選拔學生參加
- 技能競技大會：營農學生 前進大會, 地方技能 競技大會

마. 科學英才를 發掘하여 體系的으로 指導한다.

- 科學班 運營의 徹底：國·中·高校 科學探究班 運營一年 70時間 이상
- 科學高等學校 運營의 充實：深化課程指導 / 自然系列中心 進學指導

바. 소프트웨어 普及으로 컴퓨터教育을 活性化 한다.

- 教育用 컴퓨터 普及：國·中·高校 130校 2,820臺
- 教育用 소프트웨어 普及：소프트웨어 44,000篇
- 컴퓨터教育 示範學校 運營：컴퓨터補助學習(CAI) 一般化
- 컴퓨터教育센터運營：學生, 敎員研修 및 컴퓨터敎室-全地域敎育廳
- 科學 및 컴퓨터敎育 擔當敎師의 資質向上
  - 科學實驗研修 : 새 敎育課程 研修-敎師680名
  - 敎師 컴퓨터研修 : 國·中·高 敎師 1,254名

사. 實業敎育을 充實히 하여 産業·技術人을 養成한다.

- 一般系, 農業系 高校에 工業系 學科 併設：堤原高, 鎭川農高
- 農·工·商業系 高校의 實驗·實習 施設 擴充
  - 實業系 高校 實驗·實習 施設 擴充：7校, 豫算 1,183,208천원
  - 實業系 高校 內部施設費 支援：30校, 豫算 420,000천원
- 農機械 共同實習所 設置 運營：淸州農高
- 工業系 高校 女學生 入學 擴大：工業系 高校進學 勸獎
- 產學協同活性化 推進：產學間 人的·物的 交流擴大 / 姊妹 結緣

아. 環境保全 敎育으로 環境問題에 대한 道德性 및 責任意識을 鼓吹시킨다.

-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持續的 指導：具體的인 實踐經驗
  - 水質, 空氣, 土壤汚染 防止 / 實驗·實習廢棄物 處理徹底
  - 쓰레기 分離收去, 再活用品蒐集 利用指導, 合成洗劑 덜쓰기
- 自然保護活動의 內實化
  - 自然保護活動의 展開 : 實踐經驗위주의 指導

## 6. 敎員의 專門性 提高와 資質向上

- 敎育의 質을 높이기 위한 敎員의 資質 向上 研修 實施
- 學問的 水準向上, 價値觀과 態度 定立, 敎授·學習方法의 改善을 위한 自己 研鑽의 實現

가. 敎員 研修를 통하여 資質을 向上한다.

- 研修機關 活用の 極大化: 丹齋敎育院, 委託研修機關  
- 研修對象: 初等 912 名, 中等 1,196 名
- 研修課程의 深化와 프로그램의 多樣化: 現場實習, 勞作, 討議中心

나. 專門研修의 機會를 擴大하여 學生指導能力을 提高한다.

- 敎科敎育研究會 活性化: 發表機會 擴大 및 褒賞
- 敎師資質向上 研修機會 擴大: 國·中·高 敎師 4,607名
- 地域敎育廳, 學校 自體研修의 強化: 授業方法 改善, 自己研鑽
- 敎員 碩·博士課程의 特別研修 機會 擴大: 韓國敎員大 派遣 研修45名  
- 碩·博士 課程 政策課題研究 推進 / 研究結果 施策反映

다. 獎學活動의 內實化로 敎授·學習方法을 改善한다.

- 地域敎育廳別 特色있는 敎育施策 推進 및 情報交換: 合同, 協力 獎學
- 效率的인 獎學協議 實施: 前·後半期 獎學協議班 編成 運營
- 授業獎學의 充實: 授業獎學의 方法 研究-臨床, 診斷의 方法
- 校長, 校監의 獎學力 提高 / 同僚獎學의 擴大 / 獎學活動 優秀事例 擴散
- 自己獎學의 定着: 研究·讀書하는 敎師像 定立

라. 研究·示範學校의 運營을 內實化하여 優秀事例를 擴散한다.

- 敎育部, 道指定學校 縮小運營: 敎育部指定 7校, 道指定 15校, 總22校
- 道敎育廳, 地域敎育廳 研究·示範學校 運營 結果 優秀事例 一般化

## 7. 教育與件的 改善

- 快適하고도 便利한 教育環境을 造成하여 學生과 教師들이 教授·學習에 專念하도록 支援
- 質 높은 學習機資材 및 設備을 提供하여 密度높은 教育이 이루어지도록 與件造成

가. 學校를 新設하고 統·廢合하여 收容能力의 均衡을 維持한다.

- 國·中·高校의 新設：國3校, 中3校 ('94.3.1 開校), 高1校('93.3.1 開校)
- 小規模學校의 統·廢合 및 再配置：分教場 格下 13校, 分教場 廢止 12校
- 高等學校 體制 改編：鎭川農高→鎭川農工高 / 淸州中央高→忠北藝術高

나. 快適한 授業環境을 造成하여 學生과 教師들이 授業에 專念하도록 한다.

- 教室의 增築：國·中·高 總 94 室
- 特別教室 增築：高校 4 室
- 公·私立校의 老朽책·결상 完全交替：國·中· 50,136組
- 電氣施設 補修로 照度 改善：24校 400教室
- 教室의 多機能化：열린教育을 위한 多機能 施設, 遊休教室의 學習場化

다. 學校周邊의 有害한 教育環境을 整備한다.

- 學校周邊 有害業所 및 施設 整備：對象 46 業所
- 學校 建物 管理 徹底：自體 定期 點檢 實施
- 施設物 安全管理 / 消防施設 定期 點檢

라. 私立學校의 財政 缺陷額을 支援한다.

- 私立學校 財政缺陷額 支援：中·高 39 校, 豫算 19,965,622천원
- 私立特殊學校 財政支援：6 校, 豫算 2,722,638천원

마. 敎員業務輕減을 위하여 行政裝備를 支援한다.

- 公·私立 32校, 豫算 124,000천원

## 清州市 一般系 高等學校 新入生 選拔 方法 改善 推進 (案)

### 0 現行 平準化 制度의 問題點

- 地方化時代에 따르는 自律性 缺如
- 學生의 學校 選擇機會 排除 (選擇科目, 通學距離, 宗教 等)
- 學校의 學生 選拔權 喪失
- 學習 集團의 異質化 - 效率的인 授業運營 및 生活指導 困難
- 私學의 自律, 獨自性 追求 困難
- 下向 平準化

### 0 改善의 肯定的인 側面

- 學校의 特色 있는 發展 意志 圖謀
- 學生의 學校 選擇權, 學校의 學生 選拔權 回復
- 學生 信仰에 符合하는 學校 選擇 (宗教로 인한 葛藤 解消)
- 學習 集團의 同質化에 의한 效率的인 授業 運營
- 交通難 緩和 (近距離 學校 志願)
- 私學의 自律, 獨自性 追求
- '96. 3月 부터 改編에 따른 對策 講究

#### <第一案>

### 0 基本方向

- 現行 高校 平準化 制度 基本 骨格 維持

### 0 改善方案

- 總募集定員을 選拔, 志願校에 成績順으로 先配定 (2志望까지 許容)  
殘餘人員은 未達校에 抽籤 配定

#### <第二案>

### 0 基本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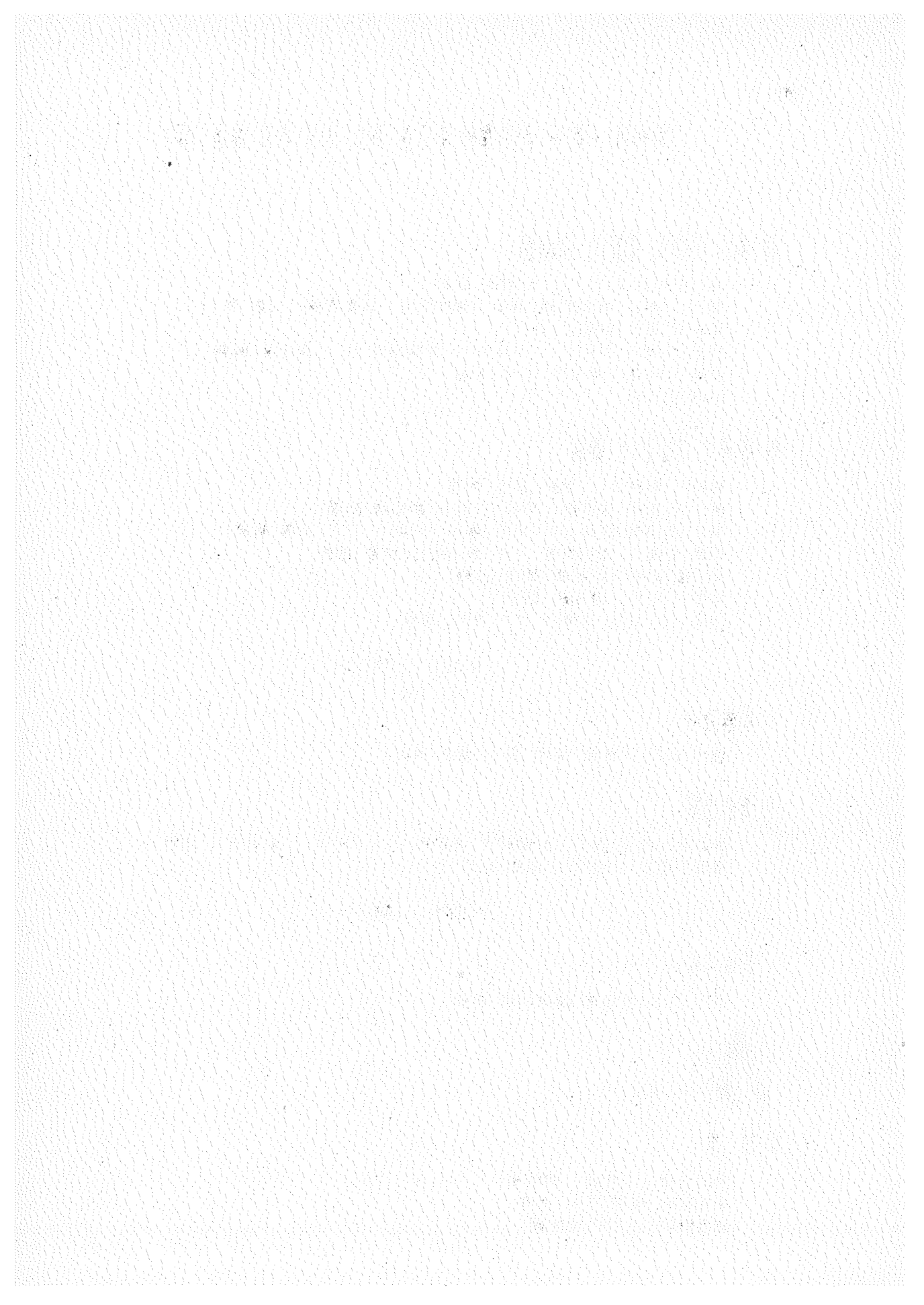
- 現行 高校 平準化 適用地域 解除

### 0 改善方案

- 學校別 選拔

### 0 節次

- 輿論收斂 (公聽會, 說明會) : '93. 1 - 3月
- 教育部에 規則 改正 建議
- 適用時期 : 1994 學年度



# 教育自治 發展을 위한 重點 事業 計劃

忠清北道教育廳

## 1. 基本方向

- 教育자치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관심 제고
- 教育자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 학교운영의 전문성, 자율성 보장으로 교육발견

## 2. 事業內容

### 가. 學校長 中心의 自律 行政 實現

- 학교장의 지도성 발휘 : 유.국.중.고교(원)장 세미나 개최 879명 ('93. 4월중)
- 교원의 사명감 및 책무성 제고 : 학교장의 근무지 상주, 교사.주민과의 대화
- 지역.학교단위 교육과정 구성 : 학교 개량시간 운영(영어, 한자, 컴퓨터....)  
(6차 교육과정 개정 시행 대비)

### 나. 民主的인 學校 運營

- 교직원 회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 결정 : 학교교육계획 수립, 행사계획.과정.평가
-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교내 인사관리 : 담임배정, 사무분장, 표창대상자 추천
- 학교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공개 : 예산 편성시 관련교사 참여, 집행 우선 순위 결정
- 학생 자치활동 : 생활목표 설정.실천, 학생회장 직접 선거

### 다. 住民參與

- 학부모 교실 운영 : 부모교육 상담 월1회(지역사회 학교 운영)
- 학교신문.가정통신 : 학교 교육활동 안내 및 지역 여론 수렴
- 운동회, 학습발표, 소풍 등 : 학교 행사에 동참

### 라. "教育自治의 오늘과 내일" 冊子 發刊

- 내 용 : 教育자치의 이론적 연구 및 현장체험 사례 등과 관련한 논문, 논단(논고), 수상 등
- 영 역 : 教育자치제도, 주민참여, 단위학교자치 등
- 원고수집 : 教育위원, 도의원, 教育전문직, 각급학교 敎원, 일반직 등
- 발간시기 : '93. 4월중





(별첨 5)

1993. 1. 1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요 약)

충청북도교육청

#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요약)

---

## I. 배 경

## II. 목 적 : 인력의 합리적 조정 배분, 행정능률의 극대화 도모

## III. 기본방향

1. 기관별, 부서별 현 정원의 적정여부 진단
2. 신규 수요분야 : 수요 감소분야 인력 상계활용, 인력증원 억제

## IV. 진단대상

1. 기 관 : 교위,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2. 분 야 : 인력 (조직 및 사무분장 제외)

## V. 인력진단을 위한 업무 추진과정

1. 인력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 실시
2. 1차진단 : 기관별, 부서별 자체진단
3. 2차진단 : 현장조사에 의한 확인 및 의견수렴
4.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5. 『인력진단실무위원회』 운영
6. 인력진단 종합보고서 작성

## Ⅴ. 1차 진단·실시결과 분석

### 1. 현재의 정원

구 분	현 정 원					비 고
	교육전문직	일 반 직	기 능 직	별 정 직	계	
교육위원회		6	4		10	
도교육청	48	127	74	2	251	
직속기관	48	79	147	12	286	
지역교육청	113	229	105		447	
계	209	441	330	14	994	

### 2. 타 시·도교육청과의 비교 (도교육청)

시·도명	정원 총 계	고 육 전문직	일 반 직	기 능 직	별 정 직	일 반 현 황		
						학 교 수	학 생 수	교 원 수
충 북	251	48	127	74	2	495	289,671	12,141
충 민	300	57	140	100	3	818	402,026	17,748
전 북	305	55	142	107	1	837	451,910	19,709
강 원	272	52	136	82	2	1,007	335,296	15,988
대 전	227	46	115	64	2	175	244,005	8,029

3. 업무추진 현황

구분 기관명	정원	문 서 생 신			업무처리 소요시간			출 장 일 수		
		계	자 체 생 신	요 기 구 관 회 신	연 간	1인당	소요 일수	계	관 내	관 외
고 육 위 원 회	7	366	278	88	21,754	3,108	388	484	186	298
도 고 육 청	199	9,382	3,946	5,436	430,394	2,163	290	12,018	5,948	6,070
직 속 기 관	246	6,802	2,740	4,062	600,375	2,440	305	5,289	2,244	3,045
지 역 고 육 청	359	51,263	12,336	38,927	954,642	2,659	332	23,359	14,384	8,975
합 계	811	67,813	19,300	48,513	2,007,165	2,475	309	41,150	22,762	18,388

## Ⅷ. 직급별·기관별 진단 개요

### 1. 교육전문직

- 특수교육 : 장학관 1 (초등장학과), 장학사 1 (충주)
  - 유아교육 : 장학사 4 (초등장학과, 청주, 진천, 단양)
  - 컴퓨터교육 : 과학기술과 및 과학교육원에 전신담당부서 신설
    - 도교육청 : 장학관 1, 장학사 2
    - 과학교육원 : 연구관 1, 연구사 2
    - 지역교육청 : 장학사 11 (합계 17명)
  - 교육방송 : 교육방송 전담인력 배치
    - 도교육청 : 장학사 2 (초·중등장학과)
    - 과학교육원 : 연구사 1
    - 지역교육청 : 장학사 11 (합계 17명)
  - 간이야영장 : 연구사 3 (제천, 영동, 음성)
  - 종합야영장 : 연구관 1, 연구사 1
  - 학생회관 : 연구관 1, 연구사 2
  - 도교육청 : 장학사 6 (감사계, 중등장학, 생활지도, 초등인사, 중등인사, 과학담당)
  - 과학교육원 : 연구사 1 (이동과학차)
- (소요정원 총괄)
- 장학관 2, 연구관 3, 장학사 37, 연구사 10, 계 52 명

## 2. 별정직 공무원

- 현 보유정원 : 14명
- 교육위원회 : 별정 5급상당 1 (의안연구관)
- 중원학생야영장 : 별정 8급상당 → 6급상당

(증감내역 총괄) : 1명

- 별정 5급상당 증 1 (교육위원회)



### 3. 일반직공무원

- 지역교육청 인사담당자 직급 하향 조정 (정주교육청 제외)
  - 행정 6급 10 → 행정 7급
-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사무직원 배치문제 검토
  - 단계적 배치 신중 검토 필요
- 과학교육원과 과학고 사무과 통합운영 검토 - 유보
- 직속기관 전신직의 도교육청 통합운영 (4명중 2명)
  - 교육연구원, 과학고 전신 7급  $\Delta 2$  → 도교육청
- 공업고등학교 전기직의 지역교육청 배치 (7명중 2명)
  - [ 단양공고, 광혜원고 전기 7급  $\Delta 2$  → 청주·제천교육청
  - [ 단양공고, 광혜원고 기능직 (전기) 7등급 2명 배치
- 지역도서관 사무직원 증원
  - 학무과장이 도서관장을 겸임하는 도서관 : 충주, 보은, 영동, 괴산
  - 행정 6급 1 (충주 도서관장)
  - 사서 8급 3 (옥천, 진천, 음성도서관)
- 중복수영장 관리운영권의 합리적 조정
  - 충북체육고등학교장에게 수영장장 겸임
  - 행정 6급 1 → 행정 7급
  - 기능직 9등급 1 증원 (수영지도요원)
- 학생회관 : 총무과의 사무계, 관리계 폐지
  - 행정 6급  $\Delta 1$  → 정주교육청 (관재계장)
- '93 급식학교 추가 지정에 따른 영양사 확보
  - 보건 7급 14명

(증감내역 총괄) : 17명

- 사서직 7 - 8급 : 3명 (옥천, 진천, 음성도서관)
- 보건직 7급 : 14명 (국민학교)

#### 4. 기능직공무원

- 중·고등학교 당직근무와 관련한 기능직 증원 (39명)
  - 연차적으로 증원계획 수립 필요
- 수련활동이 가장 많은 중원학생야영장에 조무원 1명 증원
  - 타 시·도의 간이야영장 정원 : 5-8명 (본도 3명)
- 기능직 직렬을 실제 담당업무 직렬로 변경
  - 방호원 3 → 조무원
  - 기계원 7 → 난방원 (특별임용시 자격증 같음)
- 교육위원회 : 속기사 1, 운전원 1
- 충북수영장 : 조무원 1 (수영지도원)
- 단양공고, 광혜원고 : 전기원 2
- 단재교육원 : 조무원 △1
- 도교육청 : 운전원 △1 → 교육위원회
- 중앙도서관 : 조무원 △4 (현정원 31명)
- 학생회관 : 조무원 △3 (현정원 19명, 미배치 3명)

(증감내역 총괄) : 29명

- 사무보조원 1 (교육위원회)
- 전 기 원 2 (단양공고, 광혜원고)
- 전 산 원 1 (증평공고)
- 조 무 원 25 (중·고교 부족인력 증원)

(별첨 6)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내용 처리현황

---

충 청 북 도 교 육 청

# 행정사무감사결과요구내용 처리현황

충청북도교육청

구분	처리요구내용	처리결과	처리부서
1. 수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학교 학생들의 평생 직업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과 진로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현장 실습지도 효과를 배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정보자료 홍보</li> <li>-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정보의 안내</li> <li>- 취업 지도반 편성운영의 내실</li> <li>- 현장실습장 선정의 신중</li> <li>- 순회지도 및 안전사고예방지도</li> </ul> </li> </ul>	과학기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과정 범위내에서의 학교별 특색교육의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장의에 의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협의시 우수사례 발굴 홍보</li> </ul> </li> </ul>	초·중등 장 학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계고교 비진학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 적성, 가정사정등을 고려 비진학 예상학생에 대하여 일반계고교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상담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 주요업계획반영, 각종회의, 연찬회시 강조</li> </ul> </li> </ul>	중등장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담당공무원의 사전교육을 통한 감사자세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12월 자체감사담당공무원 교육시에 감사요원의 사명, 감사자세, 감사예절, 금직사항등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시행시 사전교육실시</li> <li>- 감사원 위탁교육 실시</li> </ul> </li> </ul>	기획감사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안전공제회 운영의 내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수범내용을 알려서 더욱 내실 있는 공제회를 운영코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금을 최저 제한액 없이 지급</li> <li>- 운영비는 최소한 경비만 지출하여 예산절감</li> <li>- 최대한의 기금운명을 위하여 자금의 대부분을 양도성 및 금전신탁예금을 하여 자금증식에 기여</li> </ul> </li> </ul>	재 무 과
2. 권장 및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거운교실', '다기능교실', '열린교실' 등 미래교육에 대비한 모범적인 교실 운영이 확산되도록 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권장(학교예산고려) 하겠으며 중심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확산 정착에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 주요업무시책에 반영시달</li> </ul> </li> </ul>	초등장학과

구분	처리요구내용	처리결과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정신 고양을 위한 정주교육청 관내 사회과 교사들의 휴가기간을 통한 내고장 문화유적답사 활동이 도내에 확산 되도록 노력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 실정에 맞게 교사 중심의 유적답사 동호집단을 구성, 방학기간을 이용 향토유적을 답사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음 - 각종회의 및 장학협의회시 강조</li> </ul>	<p>중등장학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보발행, 행정예고제 실시등을 통한 공문서 감축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유통량 감축을 위한 협조공문 발송(총무01230-1190, '92.11.2) - 문서유통량 전년도 대비10%감축 - 회보이용의 활성화</li> </ul>	<p>증 무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회관에 전문직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에 전문직 정원(3명)을 요구하였음 (초교직 01210-317, '92.4.3)</li> </ul>	<p>사회교육체육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실 있는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에 정원 요구하였음 (초교직 01210-317, '92.4.3) - 장학관4명(본정1, 지역교육청3) - 교육연구관2명(직속기관) - 장학사34명(본정7, 지역교육청27) - 교육연구사11명(본정1, 직속기관10)</li> </ul>	<p>초등교직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 장학직을 장학관으로 승격하거나 증원하여 교육 기획수립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로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으므로 전문직의 추가 배치 또는 직급의 승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업무가 증가되면 고려하겠음</li> </ul>	<p>기획감사담당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교육청 인사담당직원(6급)을 7급이하로 하향조정하되 초·중등 각1명씩으로 하여 인사담당장학사의 보조자로 사무분장 하도록 검토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6급을 7급으로 하향조정 하겠음 - 적용시기: '93.3.1이후</li> </ul>	<p>행정관리담당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은 교직원에게 적절히 지급되도록 제한 규정 완화방안을 검토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규정대로 실제 시간외 근무자에게 전액 지급되도록 하고 있음</li> </ul>	<p>행 정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행정자문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부응치 못하고, 행정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재검토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응토록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 현재의 위원 임기 만료후 '93.9 위원 위촉시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유관기관과의 횡적 협조체제 구축)</li> </ul>	<p>행정관리담당관실</p>

구분	처리요구내용	처리결과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학교 실습실습의 내실을 위한 장학지도 강화 방안을 검토 바람</li> <li>○ 고복작용교의 확산에 더 큰 노력하기 바람</li> <li>○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에 일반직이 배치되도록 적극 노력 바람</li> <li>○ 교의수당, 기생증검사 수수료등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일선교단지원에 투자되도록 검토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주요 업무계획, 실적 및 현황의 보고 형태에서 탈피하고 자문역할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교육행정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민주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겠음</li> <li>○ '93 장학협의 계획에 반영 현장 확인 지도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실습단원의 철저한 이행</li> <li>- 과학실험실 자료실 정비 및 활용상황 파악</li> <li>- 교단 중심의 지원체제 확립(실습·실습자로 구입지원 우선)</li> <li>- '93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반영</li> </ul> </li> <li>○ 학교장 책임하에 교사, 학생, 학부모 합의에 의한 고복작용을 권장하고 확산되도록 도생활 지도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복작용율이 '92년도 63.7%에서 '93년도 70%, '94년도 75%로 확대 예상됨</li> </ul> </li> <li>○ 교원집무경감 차원에서 소규모학교에 사무직원의 배치가 요청되고 있으나 6학급이하 168개교중 분교장 격하 대상 56개교를 제외한 112개교에 일반직을 전면 배치할 경우 연13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나 사무직원 배치의 필요성과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배치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겠음</li> <li>○ 기생증 검사에 있어 시지역(정주, 중주, 제천)은 '93년도부터 희망자에게만 실시할 예정이며, 읍이하(농촌)지역은 '96년도부터 희망자에게만 실시할 계획임</li> <li>○ 교의수당은 법개정이 없는한 계속적으로 교의를 위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제도개선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등장학과</li> <li>중등장학과</li> <li>행정관리담당관실</li> <li>사회교육체육과</li> </ul>
<p>3 시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북교육소식'의 내용에 충실을 기하기 바람, 배부처를 축소하는 등 발행 부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기 바람</li> <li>○ 도덕성 교육으로 예절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특히 '인사잘하기'에 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북교육소식의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93.1월부터 2,000부를 감축(11,000부에서 9,000부)하여 운영할 계획임</li> <li>○ '93 각종 연수시 사도교육 및 도덕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강화(중 연수시간의 10%) 하겠으며, 사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보담당관실</li> <li>중·중등장학과</li> </ul>

구분	처리요구내용	처리결과	처리부서
	<p>점을 두기 바람</p> <p>○ 학교체육이 전원체육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 교외생활지도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 노력 및 봉사정신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동행의 도덕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음(인사잘하기 교사 숭선) - 각종회의 및 연찬회의시 강조</p> <p>○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서 다음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 체육교육과정운영의 증실 · 체육수업시간의 준수 · 수업결손 보강대책 수립이행 · 영역별 단원별 이수시간 엄수 - 지출체육활동의 활성화 · 1인1운동의 생활화 여건조성 · 방과후 클럽별 체육활동지도 · 학년별 학급별 대항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발 운영 · 학교간 경기대회 일반학생 중심 운영 - 전원체육에 필요한 체육교구 및 시설확충 · 일반학생 중심의 체육교구 확보 활용 ·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 · 체육교구 및 시설의 개발 · 체육교구 및 시설의 보수 및 관리철저</p> <p>○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 내용을 철저히 추진하겠음 - 학교자체 교외생활지도 추진(교외 생활지도반 편성 매일 운영) · 등·하교시간 불량 폭력배와 교통사고로부터 학생 보호 · 학교 주변 취약지역 집중지도 · 학교 특별행사시 학생 일탈 예방지도 - 합동교외 생활지도 · 정기(지역별 월1회이상) 및 특별(입학, 졸업, 성탄, 석탄일, 연말연시)지도 · 지역교외생활지도 위원장교 주관으로 지역별 교사, 경찰, 선도위원이 참가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지도 및 교육유해업소 방문계도 · 지도비지원(시지역150만원, 군 지역100만원) · '93 주요업무계획, 각종회의, 장학협의시 강조</p> <p>○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음 - 가치관 교육강화</p>	<p>사회교육체육과</p> <p>중등장학과</p> <p>조·중등장학과</p>



구분	처리요구내용	처리결과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충수업시간에 정과수업을 지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충수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실제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바람</li> <li>○ 원로교사가 한 학교에 집중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 바람</li> <li>○ 공유재산임대요율이 현 시세에 크게 미흡한 바, 관련 조례의 개정등 현실화 방안을 강구 바람</li> <li>○ 교육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을 전교직원 이 유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li> <li>○ 단재교육원설치조례제5조(하부조직)를 '교학부장'이 수석부장이 되도록 하여 당초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도록 동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력학습 강화</li> <li>- 일하는 기풍 진작</li> <li>- 협동, 봉사활동 전개</li> <li>- 진로교육강화</li> <li>- '93 주요업무계획반영, 각종회의, 연찬회시 강조</li> <li>○ 보충수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본래의 취지에 충실함은 물론 관리비의 합리적 집행으로 교내외에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강조함</li> <li>- 보충수업운영의 합리화 공문발송(중장학25210-918, '92.11.26)</li> <li>○ 원로교사의 대부분은 경륜과 자질이 풍부하고 소명의식이 투철한 교사들로 우대되어야 하므로 본인희망, 고단경력, 생활근거지, 학교실정등을 감안 배치되고 있으나 지역교육장으로 하여금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인사위원회심의등 방안을 강구토록 인사담당자 회의시('92.11.25)지시</li> <li>○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사용료 급상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92.6.20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나 임대요율 현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음</li> <li>○ 구체적인 대책으로 다음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금요일(연구일)에 다음주 수업계획 수립시 반영</li> <li>- 공람처리</li> <li>- 원로교사, 교장, 교감의 내용을 발췌하여 자체연수 실시</li> <li>- 장학협의시 확인</li> </ul> </li> <li>○ 단재교육원 설치조례중 하부조직을 '교학부장'이 수석부장이 되도록 중정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등장학과</li> <li>초·중등교직과</li> <li>재무과</li> <li>초등장학과</li> <li>중등장학과</li> </ul>

# 행정사무감사결과요구내용 처리현황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구 분	처 리 요 구 내 용	처 · 리 결 과	처리부서
1. 수범사항	○ 어려서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용돈 기입장제도'의 운영	○ '용돈기입장제도' 운영을 확산하겠음 - 시범운영교 7개국교 2,916명 - 근검절약교육강화 - 1인1통장 갖기 운동	학 무 과
	○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기여를 위한 "쓰레기장 없애기 운동"의 추진	○ '92.5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체학교(국·중) "쓰레기장 없는 학교 만들기"운동을 지속추진 하겠음 -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 시범운영교(2교) 지정운영 - 교과와 관련지도	학 무 과
	○ 휴가중 사회과 교사들의 향토문화 및 유적답사 활동	○ 휴가중 향토문화 및 유적지 답사 활동을 지속 추진 하겠음 - 스크램북 만들기 - 관계서적 읽고 소감문 쓰기	학 무 과
	○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택 유류난방 계획	○ '92년도에 전사택이 유류난방으로 교체되도록 조치하겠음	관 리 과
	○ 회보활용등을 통한 공문서 줄이기	○ 공문서 줄이기를 지속추진 하겠음 - 유사공문서 통합시행 - 기존 통계자료 활용으로 과다한 보고문서 지양 - 간단한 문서는 전화·모사전송기 이용 - 교원업무 경감책으로 월1회이상 회보발행	관 리 과
2. 권장 및 검토사항	○ "생일잔치안하기운동"의 지속적 추진	○ "생일잔치안하기운동"을 다음 내용을 통하여 지속 추진하겠음 - 학부모회를 통한 계도 - 검소한 생활 습관 기르기 - 생일선물로 찍 주고 받기	학 무 과
	○ 일본 도토리시와의 국제 교류는 국제 이해 교육 차원에서는 평가할 만한 사업이나 뒷면에 가려지기 쉬운 예산의 낭비, 위화감 조성등의 역기능이 없도록 예의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인솔인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야영일수 증가, 방문기간단축, 선들구입지제지도로 예산을 절감 하겠으며, 방문대상 학생 선발의 공정 및 교류목적에 적합한 학생(예능, 축구)을 선발하여 위화감을 해소 하겠음	학 무 과

구 분	처 리 요 구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3. 시정사항	○ 국민학교 저학년 학급담임을 저연령중교사로 배치하도록 검토 바람	○ 학년별 학급담임의 평균연령은 1학년 45세, 2학년 47세, 3학년 46세, 4학년 44세, 5학년 42세, 6학년 40세이며, 교장회의시 저연령중교사가 배치되도록 권장하였음	학 무 과
	○ 전종하는 사회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교육담당 직원의 증원을 검토하기 바람.	○ 정주교육청 직제개편(안)에 따른 업무협의시 7급 1명을 증원요청(9.1.11.14)한 바 있으며, '92 정주교육청 인력 진단시(92.8월) 사회교육계의 계분리 및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음	사회교육 체 육 과
	○ 기생충 검사제도의 발전적 폐지방안을 검토 바람	○ 국민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수준 및 의학발달로 기생충보유자수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93년도 부터 본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임	사회교육 체 육 과
	○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원의 보충방법을 적극 검토바람	○ 도교육청과의 장학협의시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증원을 요청하였음	학 무 과
	○ 정주가 명실상부한 선진교육시가 되도록 고단선진화 특색사업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고단선진화 특색사업을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 하겠음 - 학교장의 의견수렴 - 교육행정자문위원회에 자문요구('92.11.24) - '93 정주교육주요시책수립시 특색사업선정	학 무 과
	○ 교원 휴게실이 완비되도록 관심을 갖기 바람	○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휴게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음	관 리 과
	○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전문직으로 보임토록 바람	○ 사회교육체육과장 보직 임명권자는 교육감이므로 도교육청에 건의 하겠음	사회교육 체 육 과
	○ 학교체육이 전원체육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92.11.16 체육주임회의를 실시하여 다음의 활성화 방안을 연중 실시 및 확인토록 하였음 - 중간체육운영 - 고유민속놀이 지도 - 순환장 단련 - 전원달리기	사회교육 체 육 과
	○ 실험실습비 배부예산 미집행 학교에 대하여 조속한 집행을 요구함	○ 공문시달로 실험실습비의 조기집행을 촉구하였음 (학무25320-2121, '92.11.6)	학 무 과
	○ 학교환경 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 구체적인 정비계획으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사회교육 체 육 과

구 분	처 리 요 구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p>정비계획을 강구하기 바 람</p> <p>○ 사고이월사업 발생요인을 억제하여 '93년도 부터는 시설사업에 대한 사고이 월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바람</p> <p>○ '도덕성교육심화'를 위한 지도방안 강구 요망</p> <p>○ 각종 물품구매는 연간 소 요량을 파악하고 공급시 기, 공급대상등을 고려하 여 부득이 한 경우외에는 예산의 절감 및 회계질서 의 확립을 위하여 공개경 쟁 입찰로 집행바람</p>	<p>- 교장, 학부모, 지역인사, 교육청 직 원등 15명으로 구성된 학교환경 정화위원회를 사안 발생시 수시 운영</p> <p>- 학생, 교직원, 학부모등 학교별 200명이상이 참석하여 환경정화 의날(매월 첫주 토요일)을 운영 하여 학교주변유해업소정화 가 두캠페인과 학교주변 청소 및 불법유해 광고물제거 활동 · 계도용 전단배포 45,393명 · 유관기관(정주시장, 경찰서장) 에 유해업소 정화조치요청</p> <p>○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조기 발주 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 겠음</p> <p>○ 지도방안으로 다음내용을 제시하 여 적극 추진하겠음 - 관련교과를 통한지도 - 생활일기쓰기(표경일기) - 명상의 시간운영(입지, 자기성찰) - 표행, 선행학생 발굴선양 - 표경교실운영(휴기중 학교 장학 자료 활용)</p> <p>○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 찰로 집행토록 하겠음</p>	<p>관 리 과</p> <p>학 무 과</p> <p>재 무 과</p>

# 행정사무감사결과요구내용 처리현황

---

충청북도중주교육청

구 분	처 리 요 구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1. 수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교육활성화를 위한 등호인클럽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재 40명으로 컴퓨터등호인클럽이 조직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92년도에 자체연수 40시간, 제2회 프로그램전시회를 개최하는등 자체연수를 통한 기능연마에 활발히 운영중에 있음.</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예고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업무계획에 연간 행사계획 및 문서처리 예고 일람을 수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초 주요업무계획에 포함 산하기관에 보내줌으로써 사전 준비에 참고, 기일전 해당사항 준비 및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li> </ul> </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장학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장학정보와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자료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자료 및 교육시책자료 수집</li> <li>- 연구 작성하여 장학자료 발행</li> <li>- 학교의 우수지도사례 및 새로운 이론과 적용방법 일반화</li> <li>- 각종 교육정보, 교육정행사 및 교육활동 소개</li> <li>- 월2회 (매월1일, 15일) 발행</li> <li>- 학교에서는 복사 연구일에 연수자료로 활용</li> </ul> </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방송의 예약 녹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방송의운영 조직에 의거 학교 별 자체 예약녹화 활용강화</li> <li>○ 교육청 자료실에서 녹화 제공지원 계속사업실시</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바른생활 지침으로 생활교본 제작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생활본 작성 활용이 수범사례로 평가된 바, 각급학교에서 제작된 교본은 더욱 알차게 활용하고 미 실시된 학교에서는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교본을 제작 학생생활지도에 활용토록 권장 확산코자 함.</li> </ul>	학 무 과

구분	처리요구내용	처리결과		처리부서
2. 권장 및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장 없애기 운동 정지를 통한 환경보존 교육의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에 분리수거함 설치 (재활용, 기능별, 폐기별)</li> <li>○ 학교 쓰레기장 부근에 분리수거함 설치</li> <li>○ 교과와 관련 환경보전 교육실시-계속추진사업</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교단선진화 및 미래 학습 방법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환경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단선진화를 위한 시범학급 지정운영-7개 학급</li> <li>- 교육공학적 접근-VTR, TV, CAI 자료, AHP 등</li> </ul> </li> <li>○ 미래학습 방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 개발학습 프로그램의 개발</li> <li>- 교수학습 조직-협동적, 활동적 조직</li> </ul> </li> <li>○ 시범학급 추진내용 발표회 개최</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인교육을 위한 열린교실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능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개인차에 맞는 자율학습으로 자기 학습력을 길러주는 교실체제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적인 학습의 장에서 동적인 학습의 장으로 움직이며, 생각하고 자료를 찾고 조사 관찰하는 교실</li> <li>- 교구시설의 현대화 (교실 생활의 장이 되도록 가정 처럼 불편하지 않게)</li> <li>- 교육공학적 접근 (교실의 현대화:시정각 기기 및 자료를 이용 조작하는 학습)</li> <li>- 개별, 자율학습자료 비치 (능력별 자율학습지, 학습참고도서, 각종 소프트웨어 준비)</li> <li>- 다양한 학습방법 적용 (자율학습(개별학습) 분단상호 학습, 관찰조사, 비교 종합협회의 학습, 코너학습, 순환학습)</li> </ul> </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학교 교원휴게실 설치 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설치된 32개교중 20교는 교내의 유휴공간을 이용한 간이 휴게실을 마련 활동하고 있으며, 기타 12교는 년차별예산확보와 유휴공간발생시 설치하는등 최선을 다할 것임.</li> </ul>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장학지도 결과 건의사항의 조속한 해결 검토</li> </ul>	건의사항	조치내용 및 계획	학 무 과
		1.코팅기 설치 요망	.93년도 당초예산에 크팅기 6대 구입비 600만원 책정	



구 분	처리요구 내용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2. 유치원교사 연수 실시 . 92년도 중 연4회(자료 제작및협의회 공개수업)의 연수 실시 . 93년도 중 유치원교사의 컴퓨터 연수 실시 예정	
		3. 놀이시설 보수 . 노후된 놀이시설 중 경미한 사항은 자체수리토록 조치하고 대규모수리는 예산조치할 예정임	
		4. 화장실 수리 개조 . 93년도 시설사업계획시 화장실 개축 또는 개량공사는 최대한 반영하여 수리 또는 개조코자 함	
		5. 2층장설치 및 교실바닥수선 . 절거대상 건물에 대한 이중장설치는 불가하여 교실바닥 수선을 위하여 500,000원을 예산배부 조치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무과 인사담당직원(6급)을 7급이하로 교체하되, 초·중등 각1명씩 배치하여 인사담당 장학사의 보조자로 사무분장 하도록 검토 바람</li> <li>○ 소규모 학교(6학급이하) 일반직 배치 검토</li> <li>○ 소규모 학교의 시설확보를 위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방안 검토</li> <li>○ 시설공사 설계용역비 집행률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금적 지역거주 설계 사무소와 계약토록 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무과 인사담당 직급조정 및 추가 인원 배정은 집행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적의 처리코자 함</li> <li>○ 현재 7학급이상의 학교에 사무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교육법시행령 제39조에 "국민학교에 사무직원 1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 학교의 사무직원배치는 년차적으로 6학급 이하에도 배치 예정임</li> <li>○ 학부모 또는 지역독지가들과의 꾸준한 유대강화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li> <li>○ '94학년도 개교예정인 중주연수국민학교와 중앙중학교의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을 '92. 11. 11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충주시 소재 정세영 건축사사무소(정세영) 및 예성 건축 설계사 사무소(김이구)에게 각각</li> </ul>	<p>관 리 과</p> <p>관 리 과</p> <p>관 리 과</p> <p>관 리 과</p>



구 분	처 리 요 구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p>3. 시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이월사업 발생요인을 억제하여 '93년도 부터는 시설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바람</li> <li>○ 교육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각종 교육간행물을 전직원들이 수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li> <li>○ 교외생활지도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li> <li>○ 학교체육이 전원체육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2.11.16일, 11.12일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역거주 설계사무소와 계약할 예정임</li> <li>○ 예산의 배정과 동시에 설계착수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주진에 철저를 기 하겠음</li> <li>○ 간행물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내지 공간을 확보하여 교감의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교직원연수계획에 간행물 내용을 발췌 활용토록 계획에 포함 또는 회람을 통하여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지시 하였음</li> <li>○ 교외생활지도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교외생활지도: 자체계획에 의거 매일 실시</li> <li>- 특별교외생활지도: 석가탄일등 연6회(교사합동 실시)</li> <li>- 연합교외생활지도: 경찰합동 월 1회 실시</li> <li>- 교육청 자체 교외생활지도반 운영 : 전문직11명, 2개조 편성, 주 2회 실시</li> <li>- 학교주변 불량배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 : 일주일 간씩, 분기별1회, (7개조 편성 : 형사1명, 교사2명씩 1조)</li> </ul> </li> <li>○ 교장을 비롯한 전직원, 학부모의 의식 전환으로 일과중 하루에 한 번씩 중간체조나 순환운동 등 전원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 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 리 과</li> <li>학 무 과</li> <li>학 무 과</li> <li>학 무 과</li> </ul>

# 행정사무감사결과요구내용 처리현황

충청북도영동교육청

구 분	처 리 요 구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1. 수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상품으로 양서를 시상하는등 독서생활화 운동의 전개 및 독서교실의 내실적인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동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시달시 강조 및 3회에 걸친 교감회의시 추진사항점검 및 재강조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를 갱지로 사용하여 물자절약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 공작기강확립 세부실전계획통보(관리01540-422, '92.3.23)드등 4회에 걸쳐 물자절약 및 씹씀이 10%줄이기운동을 강조 지시하였고 이면지 재활용함비치,쓰레기분리수거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각종서류 작성시 가급적 신문용지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음</li> </ul>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르고 글센 어린이' 교육을 위한 '바른 영동어린이 기록장'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동교육청 특색사업으로 계속추진할 계획이며 예절,경제,질서생활의 실천기록으로 절제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바른 영동어린이 기록장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조치하였음</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학습 3훈 지키기'의 내실있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학습 3훈 지키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교수.학습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li> </ul>	학 무과
	2. 권장 및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의제도 및 기생증 검사제도의 발전적 폐지방안을 검토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신체검사규칙 제3조에 의거 학생의 체질검사는 학교 축탁의(교의)로 하여금 검사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생증질환예방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부칙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1.1부터 기생증 검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6년부터 폐지할 계획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여행지 선정에 있어 국민정신교육 진작을 위한 장소가 포함되도록 검토 바라며, 수학여행시 인솔 교사가 품위를 실추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수학여행추진 학무25130-1095('92.6.16)호로 수학여행시 현장학습내용의 체계적 지도방안을 강구하고 코스선정에서 비교육적 장소배격 및 학생을 위한 학생중심의 수학여행이 되도록 지시한 바</li> </ul>	학 무 과

구분	처리요구내용	처리결과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 바람</li> </ul>	<p>있으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통보(관리 01600-1521 '92.12.7)호로 인솔교사가 품위를 실추하지 않도록 자체연수등을 통하여 지도하도록 조치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배정, 사무분장, 주임교사임용 등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뒤 결정하도록 이미 행정지시가 되어 있으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통보(관리01600-1521 '92.12.7)호로 인사자문위원회가 미조직된 학교는 즉시 조직하고 연수대상자선정, 표창대상자추천, 교원전보등 인사관련 분야는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교내에 인사자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음을 직원회의를 통해 홍보하도록 조치하였음</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회 개최일자 결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주민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검토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통보(관리01600-1521 '92.12.7)호로 '93학년도부터 운동회개최일시를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조치하였음</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양강좌를 통하여 자녀에 대한 도덕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어머니회장을 소집 도덕교육에 관한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으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통보(관리01600-1521 '92.12.7)호로 각 학교별로 농한기를 이용 어머니회원을 소집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의 사례발표로 체험당을 들게 하고 '나쁜습관 고치기, 진로지도' 등의 유인물을 통한 교육으로 자녀에 대한 도덕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교원휴게실 설치에 노력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실 설치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통보(관리01600-1521 '92.12.7)호로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중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음</li> </ul>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담당공무원의 7가지 준수사항이 명실상부하게 지켜지도록 노력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실시전에 사전 교육을 통하여 7가지 준수사항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음</li> </ul>	관 리 과

구 분	처 리 요 구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3. 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능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검토 바람(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우수교원의 활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연수 실시(학무25216-668 '92.4.10)호에 의한 연수시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였으며 '92 표집수학능력평가분석(학무25125-2275 '92.12.1)호에 의한 공동연수시 석사학위 소지자를 적극 활용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며 동·하계휴가시 수학능력평가와 관련한 근무지외 연수를 적극 권장하도록 조치하였음</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수익금 확대를 위한 발전적 재산활용 방안을 검토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경지임대 계약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유실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생산물매각대 납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폐지분교장의 임대를 적극 검토 자체수익금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음</li> </ul>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생활지도의 강화로 학생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적극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 학생생활지도계획 학무25130-580('92.3.31)호등 4회에 걸쳐 학생생활지도 강화에 대한 지시를 한 바 있으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통보(관리01600-1521 '92.12.7)호로 학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학생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음</li> </ul>	학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학교 실험실습비를 4/4분기에 배부하여 일선 교단의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을 초래케 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기에 배부하겠음</li> </ul>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물품구매는 연간소요량을 파악하고 공급시기, 공급대상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예산의 절감 및 회계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집행 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는 수익계약조건이 되어도 가능한한 공개경쟁 입찰로 구입하도록 하겠음</li> </ul>	관 리 과

(별첨 7)

# 우암상가사고관련 학생인명피해상황

'93. 1. 13. 08 : 30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 1. 사 망

학교급	학 교 명	학년	성 명	비 고
국 교	청주운천국민학교	4	이 승 자	이모덕심방 중 사망
중학교	청주중앙여중교	2	이 미 란	조부, 오빠 사망, 모 입원.
고 교	청주기계공고. (항공과)	1	정 재 호	부 증상, 모 경상.
	청주고등학교	1	이 상 선	조부, 여동생 사망, 모 입원.

## 2. 부 상

학교급	학 교 명	학년	성 명	비 고
국 교	청주덕벌국민학교	4	이 주 영	찰과상, 부 다리골절, 모 타박상.
중학교	청주중학교	2	김 병 수	다리골절, 부 타박상.
고 교	대성여고	3	권 미 선	타박상.
	운호고교	2	이 재 윤	증상, 부, 모 증상.

## 3. 기 타 (고 아)

학교급	학 교 명	학년	성 명	비 고
국 교	청주덕벌국민학교	1	황 준 호	부모사망, 동생(4세)과 생존
고 교	청석고교	2	서 상 국	부모, 형2명 사망.

